三綱行實 二

烈女

三綱行實目錄

烈女

伯姬逮火 一　女宗知禮 二
殖妻哭夫 三　宋女不改 四
鄭女代死 六　高行割鼻 五
穆姜撫子 七　禮宗罵卓 九
貞義刎死 八　媛姜解梏 十
令女截耳 十一　李氏感燕 十二 新印本 王氏
崔氏見射 十三　淑英斷髮 十四
魏氏斬指 十五　李氏負骸 十六

趙氏縊輿 十七
徐氏罵死 十八
李氏縊獄 十九
雍氏同死 二十
貞婦清風 二十一
梁氏被殺 二十二
明秀具棺 二十三
義婦臥冰 二十四
童氏皮面 二十五
王氏經死 二十六
朱氏懼辱 二十七
翠哥就烹 二十八
寧安貞節 二十九
彌妻啖草 三十 新印本皆訛
崔氏奮罵 三十一
烈婦入江 三十二
林氏斷足 三十三
金氏撲虎 三十四
金氏同窆 三十五

빅희ᄂᆞᆫ노션공의
ᄯᆞᆯ이오송공공의
안해라공공이죽
으매열ᄒᆞᆫ밤의집
이블브투니자위
피ᄒᆞ믈쳥ᄒᆞᆫ대빅
희ᄀᆞᆯ오ᄃᆡ부인의
도리ᄂᆞᆫ보비ᄅᆞᆼ양
뎌ᄯᅢ고이기ᄅᆞᄯᆞᄂᆞᆫ업ᄉ
면밤의ᄉᆞ믈히ᄂᆞ리
지아니ᄒᆞᄂᆞ니보
뫼오기ᄅᆞᆯ기ᄃᆞᆯ여
ᄒᆞ리라이믁ᄒᆞ
야보뫼니ᄅᆞ니쥐
위ᄯᅩ피ᄒᆞ믈쳥ᄒᆞᆫ
대ᄀᆞᆯ오ᄃᆡ부뫼오
지아니ᄒᆞ여셔ᄂᆞ
가히ᄂᆞᆯᄒᆞᄂᆞ리되

三綱行實烈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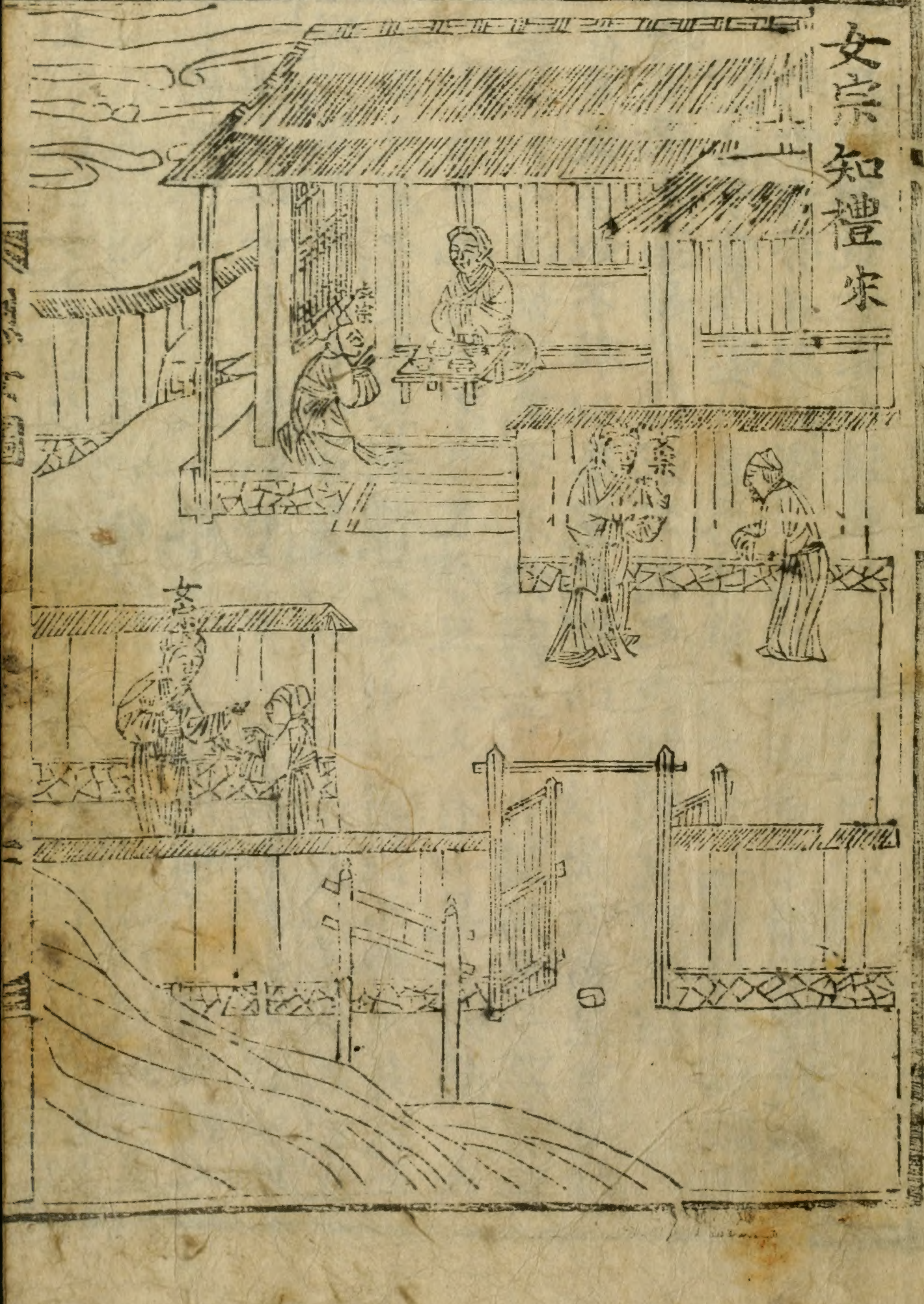
伯姬逮火 宋

몯ᄒᆞᆯ지라의믈어
근옷고사ᄂᆞᆫ거ᄉᆞᆫ
죽ᄂᆞ니만몯ᄒᆞ마
ᄒᆞ고블이몸의니
무되떠치아니ᄒᆞ
고죽으니라

伯姬魯宣公之女嫁於宋恭公公卒甞遇夜失火左右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保傅不俱夜不下堂待保傅來也保母至矣傅母未至也左右又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傅母不至夜不可下堂越義而生不如守義而死遂逮於火而死

詩 宮中失火正嬉嬉煙燄連天半夜時左右縱言宜少避夫人豈肯婦儀虧 共姬守禮任捐軀婦道堅貞孰與儔聖筆特書賢節義聲名爆赫至今留

뎌종은송나라포
소의안해라지아
비위에가삼텬을
벼슬ᄒᆞ여다론쳐
를취ᄒᆞ니뎌종이
싀어미봉양홈을
뎌옥공경ᄒᆞ고그
지아비게문안ᄒᆞᆯ셰
버금안해의게두
리이쉰믈ᄒᆞ니후
이니르되지아비
임의다ᄅᆞ니를ᄉᆞ
랑ᄒᆞ거ᄂᆞᆯ그뒤엇
지며ᄂᆞ리ᄂᆞ뇨뎌
종이ᄀᆞᆯ오되계집
이ᄒᆞᆫ번쉬방마주
매지아비죽어도
쳘을고치지아니
ᄒᆞ고질삼ᄒᆞ여의



복을밍ᄀᆞᆯ아ᄉᆡ어
버이ᄅᆞᆯ셤기ᄂᆞ니
엇지저아비ᄉᆞ랑
이런일치못ᄒᆞ므
로ᄆᆞ옴을고치리
오베믄의셤비ᄂᆞᆫ
두안해ᄅᆞᆯ두게ᄒᆞ
여시니내지아비
ᄂᆞᆫ션비라둘흘두
미가치아니ᄒᆞ냐
칠거지악의새옴
이웃ᄯᅳᆷ이라날로
ᄒᆞ여곰웃ᄯᅳᆷ죄ᄅᆞᆯ
범ᄒᆞ라ᄒᆞᄂᆞᆫ다ᄒᆞ
고싀어미셤기기
ᄅᆞᆯ더옥삼가ᄒᆞ니
송나라님금이듯
고그집을졍표ᄒᆞ
고일홈을티죵이
라ᄒᆞ니라

女宗鮑蘇之妻鮑蘇仕衛三年而娶外妻女宗養姑愈敬因往來者請問其夫賂遺外妻甚厚女宗姒謂曰可以去矣女宗曰何故姒曰夫人旣有所好子何留乎女宗曰婦人一醮不改夫死不嫁執麻枲治絲繭織紝組紃以供衣服澈漢酒醴羞饋食以事舅姑以專一爲貞以善從爲順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禮天子十二諸侯九卿大夫三士二吾夫士也有二不亦宜乎且婦人有七見去夫無一去義七去之道妬正爲首淫僻竊盜長舌驕侮無子惡病皆在其後吾姒不教以居室之禮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將安所用事姑愈謹宋公聞之表其閭號曰女宗

詩 君子當年娶外妻恩情雖備豈含悽養姑不懈誠彌
封千古芳名孰與齊
閨門嫉妬是常情賂遺還能出
至誠稱號女宗非溢美閑陳婦禮甚分明

졔나라장공이게
셔홀칠셰긔량식
이싸화죽으니장
공이도라오다가
긜ᄒᆡ긔식의쳐를
만나ᄉᆞ쟈로ᄒᆞ여
뭄됴상ᄒᆞ니식의
쳐ᄀᆞᆯ오ᄃᆡ내지아
비죄예죽지아니
ᄒᆞ여실션대내집
이이시니엇지들
하쳐됴상을비ᄃᆞ
리오장공이이예
그집의가됴상ᄒᆞ
고가니라식의안
해ᄌᆞ식과권쳑이
업순지라그저아
비죽엄을셩아래

누이고슬피우니
듯ᄂᆞᆫ사ᄅᆞᆷ이눈믈
흘리지아니ᄒᆞ리
업터라님의영장
ᄒᆞ매믈오뒤게집
이반ᄃᆞ시의지ᄒᆞᆯ
곳이잇ᄂᆞ니내우
ᄒᆞ로부뫼업고가
온대로지아비업
고아래로ᄌᆞ식이
업ᄉᆞ니내졍셩과
절의ᄅᆞᆯ뵐듸업ᄉᆞ
니또ᄒᆞᆫ죽을ᄯᆞᄅᆞᆷ
이라ᄒᆞ고치슈의
ᄲᆞ져죽ᄋᆞ니라

齊莊公襲莒杞梁殖戰而死莊公歸遇其妻使使者弔之於路杞梁妻曰今殖有罪君何辱命焉若令殖免於罪則賤妾有先人之敝廬在下妾不得與郊弔於是莊公乃還車詣其室成禮然後去杞梁之妻無子內外皆無五屬之親旣無所歸乃枕其夫之屍於城下而哭內誠動人道路過者莫不爲之揮涕旣葬曰吾何歸矣夫婦人必有所倚者父在則倚父夫在則倚夫子在則倚子今吾上則無父中則無夫下則無子內無所依以見吾誠外無所倚以見吾節吾豈能更二哉亦死而已遂赴淄水而死

詩 良人不返家堪哀 郊弔焉能偶愛迴 城下枕屍終善哭 國人揮涕豈徒哉 依歸何所見吾誠 更二無心愛此生 遂赴淄流輕一死 至今鳴咽帶愁聲

채나라사ᄅᆞᆷ의안
해ᄂᆞᆫ송나라사ᄅᆞᆷ의
ᄯᆞᆯ이니지아비악
질이잇거ᄂᆞᆯ그어
미고쳐셔방마치
려ᄒᆞᆫ대ᄯᆞᆯ오ᄃᆡ지
아비블ᄒᆡᆼᄒᆞᆷ은내
의블ᄒᆡᆼᄒᆞ미라계
집이ᄒᆞᆫ번셔방마
ᄌᆞ매몸이ᄆᆞᆺ도록
끄티디아니ᄒᆞᄂᆞ
니블ᄒᆡᆼᄒᆞ여지아
비몸쇽병을어티
신들ᄐᆡ큰연괴업
끄나ᄅᆞᆯ볼이미업
거ᄂᆞᆯ내엇지ᄇᆞ리
리오ᄒᆞ고ᄆᆞᄎᆞᆷ내
듯지아니ᄒᆞ니다

蔡人妻宋人之女也既嫁而夫有惡疾其母將改嫁之女曰夫之不幸乃妾之不幸也奈何去之適人之道一與之醮終身不改不幸遇惡疾彼無大故又不遣妾何以得去終不聽

詩 束楚綢繆夜向深三星燦燦彼蒼臨良人不幸今罹疾天只如何欲奪心　翻雲覆雨是人情況乃慈親計已成一醮獨能終不改青編萬古有高名

졀녀ᄂᆞᆫ한나라사ᄅᆞᆷ이라그지아비원슈읫사ᄅᆞᆷ이이셔지아비ᄅᆞᆯ죽기고져ᄒᆞ여졀녀의아비ᄅᆞᆯ협박ᄒᆞ야그ᄯᆞᆯ두려닐러그지아비ᄅᆞᆯ죽이게ᄒᆞ라ᄒᆞᆫ대그아비ᄯᆞᆯᄃᆞ려그ᄆᆞᆯ을닐오니졀녀아니듯고져ᄒᆞᆫ즉도젹이아비ᄅᆞᆯ죽일거시오드ᄅᆞᆫ즉지아비ᄅᆞᆯ죽일쎠라이예몸으로빼당ᄒᆞ려ᄒᆞ야거즛허락ᄒᆞ야ᄀᆞᆯ오ᄃᆡ셕일앗츰의다락우희동으로머리두엇ᄂᆞᆫ사ᄅᆞᆷ이지

아비니와셔주이라
ᄒᆞᄂᆞ지아비를권ᄒᆞ
야다ᄅᆞᆫ뒤누이고ᄉᆞ
ᄉᆞ로지아비눕ᄂᆞᆫ뒤
누어시니도적이와
머리를베혀갓다가
보니졀티의머리라
그놈들이감동ᄒᆞ야
그지아비를죽이지
아니ᄒᆞ니라

京師節女長安人其夫有仇人欲報其夫而無道聞其妻之仁孝有義乃劫其妻之父使要其女爲中譎父呼其女告之女念不聽則殺父不孝聽則殺夫不義不孝不義雖生不可以行於世欲以身當之乃且許諾曰旦日在樓上新沐東首卧則是矣妾請開戶待之還家乃告其夫使卧他所自沐居樓上東首開戶而卧夜半仇家果至斷頭持去明而視之乃其妻之頭也仇人痛之以爲有義遂釋不殺其夫

詩 吾聞節女代夫死能使仇家不敢傷計較兩端輕與
重平生孝義一身當中宵新沐獨含情白刃加身無
自明縱釋良人置生地留芳青史樹風聲

고힝은냥나라과
부라질을칙히여
셔방맛지아니ᄒᆞ
니모든귀쳑이다
취코져ᄒᆞ되엇지
곳ᄒᆞ터니남금이
그고으믈듯고텽
승으로ᄒᆞ여곰빙
톄ᄒᆞᆫ대고힝이골
오뒤계집의도리
눈ᄒᆞᆫ번쉬방마조
매고치머엽ᄂᆞ니
의롤텨리고부귀
롤ᄯᅩ오믄텨옥사
롬의ᄒᆞᆯ배아니라
ᄒᆞ고갈로그코롤
버혀ᄂᆞᆫ오디님금
이발을취ᄒᆞ은그

ᄉᆡᆨ을탐홈이라이
제코롤베혀시니
무어ᄉᆡ쓰리오내
죽지아니홈은어
린ᄌᆞ식을위ᄒᆞ미
라ᄒᆞ니님금이듯
고크게긔특이너
겨복호ᄒᆞ고일홈을
ᄒᆞ야고힝이라ᄒᆞ
니라

高行梁之寡婦夫死早寡不嫁梁貴人爭欲娶之不能得
梁王聞之使相聘焉高行曰妾聞婦人之義一往而不改
以全貞信之節忘死而趍生是不信也貴而忘賤是不貞
也棄義而從利無以為人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妾已
刑矣所以不死者不忍幼弱之重孤也王之求妾者以其
色也今刑餘之人殆可釋矣於是相以報王大其義高其
行乃復其身尊其號曰高行

【頌】貴人求娶譁紛爭千乘使王聘求行自道婦人貞信
耳豈容忘死却趍生持刀割鼻作刑餘幼穉重孤可
忍讒相以華來終自釋梁王錫號亦猗歟

목강은한나라사ᄅᆞᆷ
이니뎡문구의후쳐
라아ᄃᆞᆯ둘흘나코젼
쳐의게아ᄃᆞᆯ네히잇
더니문귀안동ᄐᆡ원
이되엿다가벼ᄉᆞᆯ의
셔죽으니젼쳐의네
아ᄃᆞᆯ이계모를졔어
미아니라ᄒᆞ야서로
헐ᄲᅳ리며믜워ᄒᆞ되
목강이ᄉᆞ랑ᄒᆞ기를
더옥극진히ᄒᆞ야나
흔ᄌᆞ식의셔지나더
라젼쳐의맛아ᄃᆞᆯ홍
이병들엇거ᄂᆞᆯ목강
이친히약을ᄃᆞ리며음
식을보ᄉᆞᆯ피은졍이

더옥깁흐니홍이병
을ᄒᆞ리며세아ᄋᆞ
려ᄂᆞᆫ려ᄅᆞᆯ오녀계뫼
우리ᄅᆞᆯ깁히ᄉᆞ랑ᄒᆞ
시거ᄂᆞᆯ우리ᄂᆞᆫ혜ᄅᆞᆯ
모ᄅᆞ고셤기ᄆᆞᆯ무상
히ᄒᆞ야죄악이만ᄒᆞ
니엇지인륜의참예
ᄒᆞ리오ᄒᆞ고세아ᄋᆞ
ᄅᆞᆯᄃᆞ리고고올옥의
가갓치여원의게죄
ᄅᆞᆯ쳥ᄒᆞ니원이긔특
이너겨그어미ᄅᆞᆯ표
쟝ᄒᆞ고집을복호ᄒᆞ
니라

程文矩妻李穆姜有二男而前妻四子文矩爲安衆令喪於官四子以母非所生憎毁日積而穆姜撫子益隆衣食資供皆兼倍所生前妻子興遇疾困篤母親調藥膳恩情篤密興疾瘳呼三弟謂曰繼母慈仁吾兄弟不識恩養雖母道益隆我曹過惡深矣遂將三弟詣南鄭獄乞就刑辟縣言之於郡表異其母蠲除家徭遣散四子許以脩革自後訓導愈明並爲良士

詩 穆天已喪在惸惸撫育諸孫倍所生訓導愈明隆母道終教悔悟有賢名　義子頑愚視若讎那知慈母似鳲鳩終然悔過爭歸獄始信人心本不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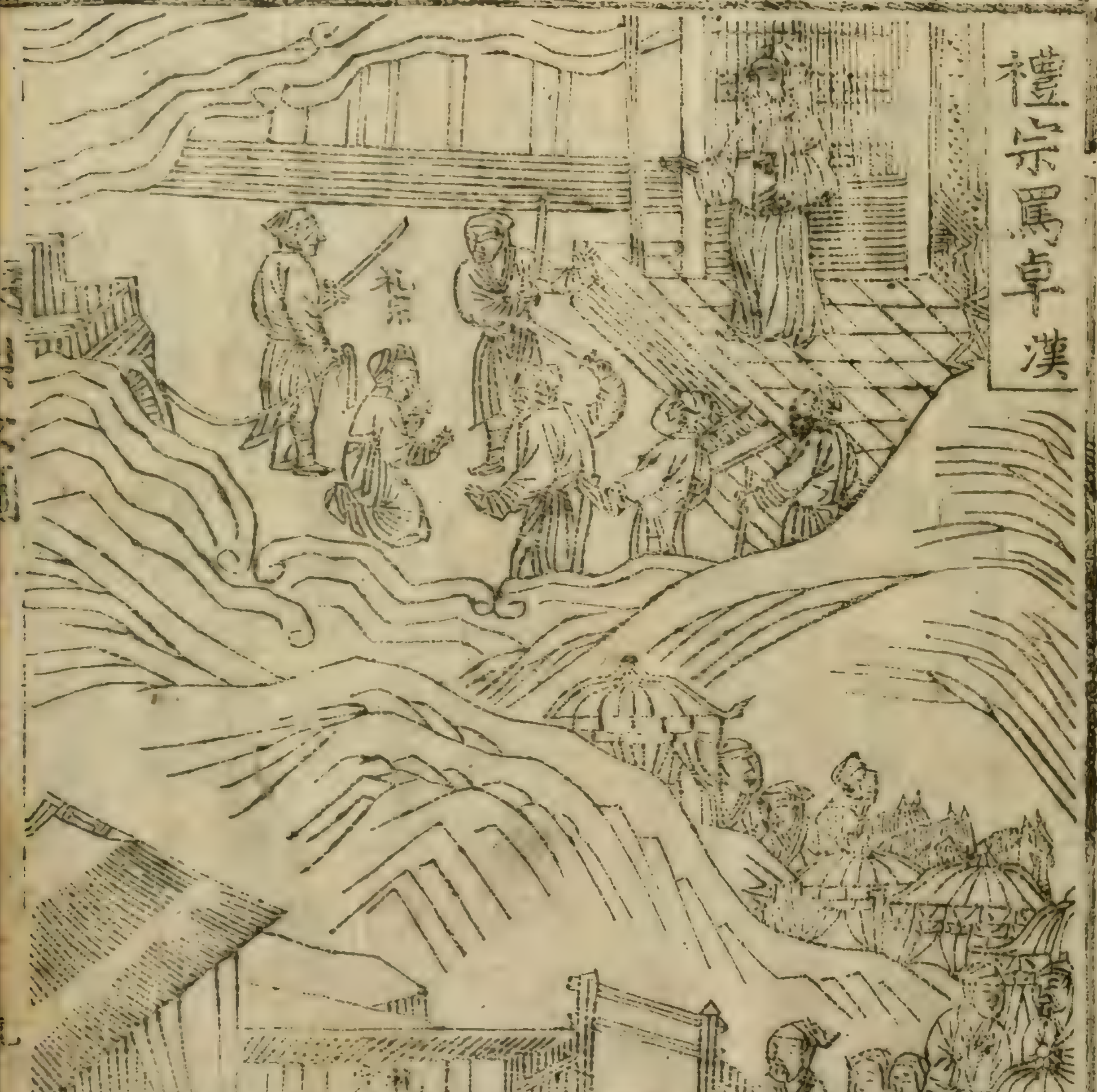
한젹악양ᄌᆞ의쳐ᄒᆡᆼ실
이놉ᄐᆞ니양ᄌᆡ일즉길
희셔금을어더다가그
쳐을준대쳐ᄀᆞᆯ오ᄃᆡ쳡
은드르니뜻잇ᄂᆞᆫ션비
ᄂᆞᆫ도쳔셤일홈이니도직도ᄌᆞ토일홈
아ᄌᆡ라ᄋᆞᆫ셤읫물을먹지아
니ᄒᆞ고쳥렴ᄒᆞᆫ샤ᄅᆞᆷ은
차래호흑말ᄎᆞ이며라오라ᄒᆞᄂᆞᆫ
음식을먹지아니ᄒᆞᆫ다
ᄒᆞᄂᆞ니엇지길희들온
거ᄉᆞᆯ주어그ᄒᆡᆼ실을더
러이리오ᄒᆞ니양ᄌᆡ크
게붓그려금을내여ᄇᆞ
리고스승을조차ᄇᆡ
화칠년을도라오지아
니ᄒᆞ니쳬싀어미ᄅᆞᆯ지
셩으로봉양ᄒᆞ더니싀

어미이옷집돍을잡아
장ᄎᆞ먹으려ᄒᆞᆯ쌔양ᄌᆞ
의쳬믄득ᄃᆡᄒᆞ여우리
ᄀᆞᆯ오ᄃᆡ집이간난ᄒᆞ여
밥상의놈의집고기이
시니이는나의불효ᄒᆞ
미로다ᄒᆞᆫ대싀어미븟
그러이너겨그고기ᄅᆞᆯ
ᄇᆞ리니라후의도적이
ᄀᆞ취ᄅᆞᆯ겁박ᄒᆞ고취ᄒᆞ
여몰쥐그싀어미ᄅᆞᆯ쥐
히거ᄂᆞᆯ취떡덜티죽으
니ᄀᆞ을원이도적을자
바죽기고베로써영장
ᄒᆞ고일홈ᄒᆞ야ᄀᆞᆯ오ᄃᆡ
뎡의라ᄒᆞ니라

樂羊子妻不知何氏女羊子嘗行路得金一餅還以與妻妻曰妾聞志士不飲盜泉之水廉者不受嗟來之食況拾遺求利以汙其行乎羊子大慙乃捐金於野而遠尋師學七年不返妻常躬勤養姑又遠饋羊子嘗有他舍雞謬入園中姑盜殺而食之妻對雞不餐而泣姑怪問其故妻曰自傷居貧使食有他肉姑竟棄之後盜有欲犯妻者乃先刼其姑妻聞操刀而出盜曰釋汝刀從我可全不從我則殺汝姑妻仰天而歎擧刀刎頸而死盜亦不殺其姑太守聞之捕殺盜而賜妻縑帛以禮葬之號曰貞義

詩
路拾黃金恥古人
竊烹隣畜泣家貧
姑能遷善郎勤學
幾諫從容婦德新
有盜來侵首刼姑
謂言從已可全軀
擧刀刎頸摧肝膽
義烈貞姿照畫圖

한녕황보규의쳬
칭실이놉히니키
쥬로매승샹동탁
이그고음을듯고
지블올관히주고
쳐히며달내여도
체ᄐᆡᆨ의문의기슐
피비나탁이보ᄃᆞᆫ
군ᄉᆞ로ᄒᆞ여곱에
위ᄋᆡᆺ고칼로쳐혀
골오ᄃᆡ내위엄이
텬하의ᄒᆡᆼᄒᆞᄂᆞ니
네감히거ᄉᆞᆯ소냐
규이쳬시혀탁을
가지저골오ᄃᆡ너
ᄂᆞᆫ오랑캐ᄶᅡ라텬
하ᄅᆞᆯ독해ᄒᆞ고오
히려죽디못ᄒᆞ여



禮宗罵卓 漢

나를핍박ᄒᆞ고귀
ᄒᆞᆫ나ᄅᆞ이태로
ᄒᆞ여그쳐의멀이
ᄅᆞᆯ수릐채에ᄃᆞᆯ고
큰매로티니췌ᄅᆞᆯ
오ᄃᆡ미이쳐텨수
어죽긔ᄒᆞ라ᄒᆞ고
안ᄒᆞ여수릐알애
쳐죽으니ᄒᆞᆺ사ᄅᆞᆷ
이그열졀을근이
고일홈을베죵이
라ᄒᆞ니라

皇甫規妻不知何氏女。規卒妻年猶盛而容色美董卓為
相國承其名聘以軿輜百乘馬二十匹奴婢錢帛充路妻
乃輕服詣卓門跪自陳請辭甚酸愴卓使侍者拔刀圍之
而謂曰孤之威教欲令四海風靡何有不行於一婦人乎
妻知不免乃立罵卓曰君羌胡之種毒害天下猶未足邪
妾之先人清德奕世皇甫氏文武上才為漢忠臣君親非
其趣使走吏乎敢欲行非禮於爾君夫人耶卓乃引車庭
中以其頭懸軛鞭撲交下妻謂持杖者曰何不重乎速盡
為惠遂死車下後人圖畫號曰禮宗

詩 清德傳家節自純肯從兇暴逸吾身縱然四海皆風
靡敢令難施一婦人 不畏庭前刑網鋒陳辭立罵盡
從容甘心一死全清節後世圖形號禮宗

한쪅양도의쳐됴시의
조ᄂᆞᆫ 쇠강이니양도ㅣ
죄예걸려부쳐옥의
갓쳐ᄯᅥ니밤의그쳬
도ᄃᆞ려닐리ᄅᆞᆯ오ᄃᆡ
이죄ᄂᆞᆫ사지못ᄒᆞ게
되여시니그ᄃᆡ가히
도망ᄒᆞ여분호ᄅᆞᆯ보
젼ᄒᆞ게ᄒᆞ라내머믈
이담당ᄒᆞ리라ᄒᆞ고
지아비칼을벗기고
가븨여옷ᄇᆡᄅᆞᆯ가
주어어린아ᄃᆞᆯ을ᄃᆞ
리고ᄃᆞ라나게ᄒᆞ고
힌길이지아비멀니
기ᄅᆞᆯ혜아려실ᄅᆞᆷ써
고ᄒᆞ여죽으니후에

되샤ᄅᆞᆯ만나도라와
몸이ᄆᆞᆺ도록다ᄅᆞᆫ안
ᄒᆡᄅᆞᆯ얻지아니ᄒᆞ니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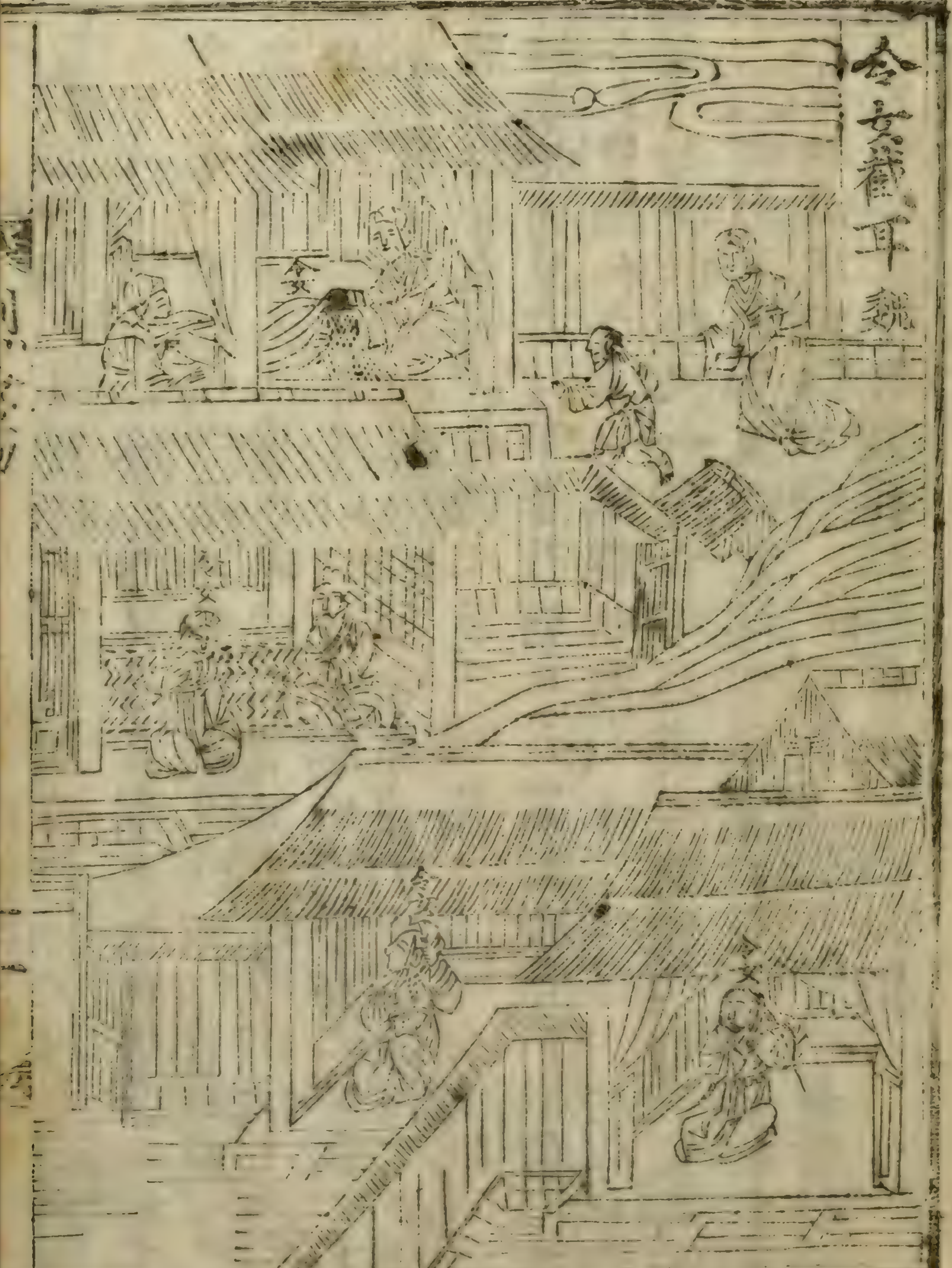
盛道妻趙氏字媛姜建安五年益部亂道聚衆起兵事敗夫妻執繫當死媛姜夜中告道曰法有常刑必無生望君可速潛逃建立門戶妾自留獄代君塞咎道依違未從媛姜便解道桎梏為齎糧貨子翔時年五歲使道攜持而走媛姜代道持夜應對不失度道已遠乃以實告吏應時見殺道父子會赦得歸道感其義終身不娶

詩

淑人趙氏字媛姜　塞咎捐生最可傷
父子俱全門戶立　終身不娶義難忘

盛道胡為欲弄兵　渾家繫獄勢難生
賢媛代戮存宗祀　竹帛千秋有令名

위나라조상의ᄉᆞ촌
아ᄋᆞ문슉의취눈하
후문팅의ᄯᆞᆯ이니일홈
은팅태라문슉이일
죽으니팅테나히졈
고ᄌᆞ식이업ᄉᆞᆫ지라
어버이곳쳐셔병맛
치고져ᄒᆞ니팅테두
귀ᄅᆞᆯ버히고조상의
계ᄉᆞ지ᄒᆞ엿더니상
의집이멸ᄒᆞ매어버
이번ᄌᆞ시사ᄅᆞᆷ으로
ᄒᆞ여곰그ᄯᅳᆯ탐디
ᄒᆞ니팅테기ᄌᆞᆺ허락
ᄒᆞ고자눈방의드려
가칼로코ᄅᆞᆯ버히고
니블을무롭쓰고누
어시니어미고이히티
겨재방의가니블을
들고보니피흘디돗
긔ᄆᆞ득ᄒᆞ엿ᄂᆞᆫ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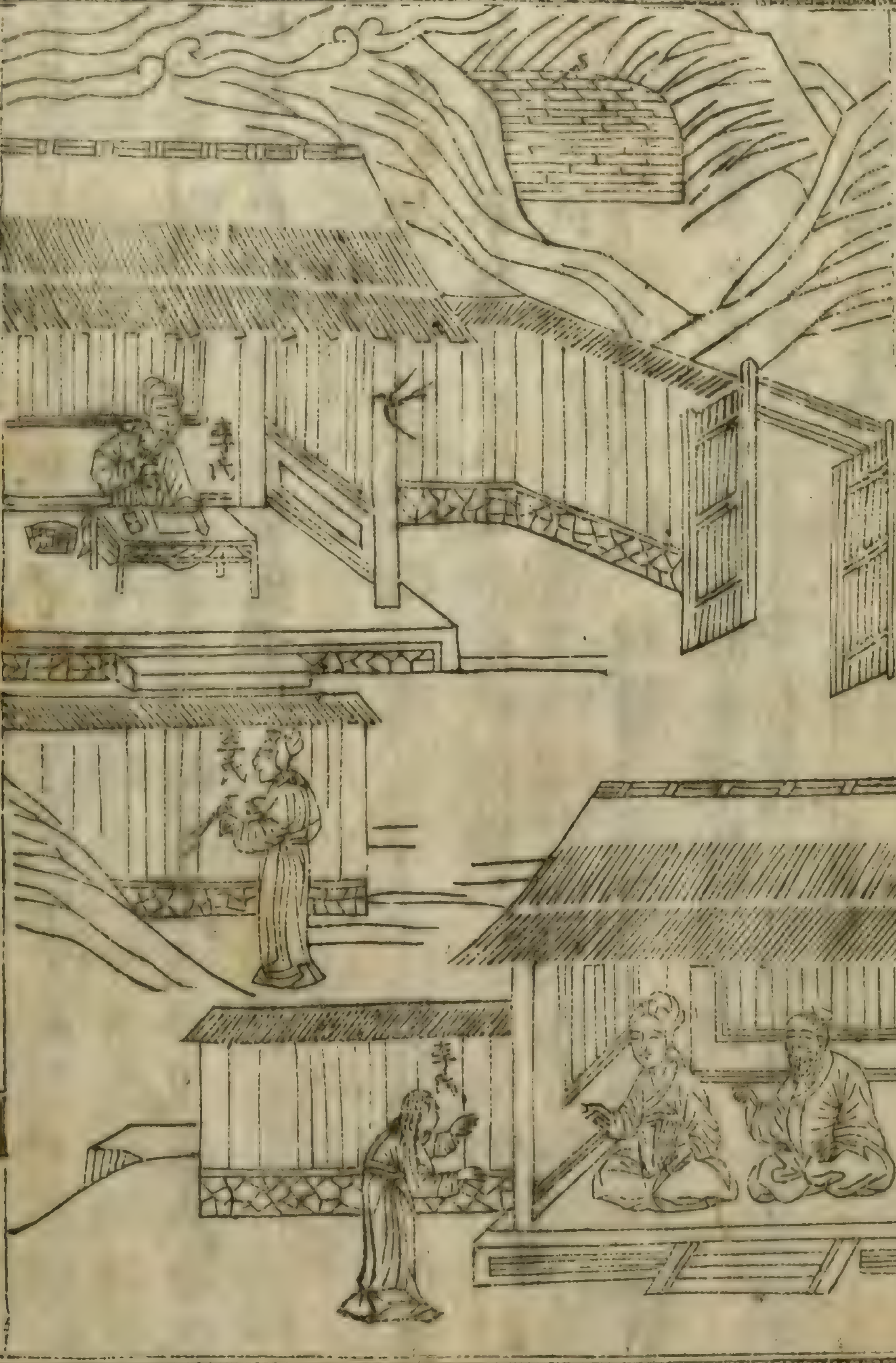
사ᄅᆞᆷ이듯고아니놀
나리업더라혹이골
오ᄃᆡ네싀집이다망
ᄒᆞ엿거ᄂᆞᆯ눌을위ᄒᆞ
여스ᄉᆞ로피로오믈
뎌리ᄐᆞ시ᄒᆞᄂᆞ뇨령
녀ᄀᆞᆯ오되내엇지셩
쇠존망으로ᄡᅥᄆᆞᄋᆞᆷ
을고치리오주글뎌
언뎡즘ᄉᆡᆼ의ᄒᆡᆼ실을
ᄒᆞ지아니ᄒᆞ리라ᄒᆞ
더라

曹爽從弟文叔妻夏侯文寧之女名令女文叔蚤死服闋
自以年少無子恐家必嫁己乃斷髮為信後家果欲嫁之
令女復以刀截兩耳居止常依爽及爽被誅曹氏盡死文
寧憐其[illegible]執義又曹氏無遺類冀其意沮乃微使人風之
令女泣曰吾亦惟之許之是也家以為信防之少懈令女
竊入寢室以刀斷鼻蒙被而卧母呼不應發被視之血流
滿床席舉家驚惶往視之莫不酸鼻或謂曰人生世間如
輕塵棲弱草耳何辛苦乃爾且夫家夷滅已盡欲誰為哉
令女曰聞仁者不以盛衰改節義者不以存亡易心曹氏
盛時尚欲保終況今衰亡何忍棄之禽獸之行吾豈為乎

詩 斷髮無他露至誠爺孃何欲奪其情伺間劓耳仍蒙
被血滿床頭孰不驚　夫家夷滅復依誰此是常情所
忽時令女不將衰與盛始終如一行無虧

송나라위병유의
쳐니ᄡᅵ나히이십
의병유죽으니부
뫼강박ᄒᆞ야ᄀᆡ가
ᄒᆞ리ᄒᆞᆫ대니ᄡᅵ멀
이터럭을버히고
ᄆᆡᆼ셰ᄒᆞ야ᄀᆡ가ᄒᆞ
디아니ᄒᆞ엿더니
엿노ᄭᅩᆺ의두졔비
깃들여도니다가
홀연이암졔비뫼
로이놀아도니거
놀니ᄡᅵ감창이녀
겨날려곤오되비
능히날파ᄌᆞ치죵
시히외로이니별
다ᄒᆞ고집아시로
발의ᄆᆡ야보람ᄒᆞ
엿더니셜연의다
시와쉬외로이놀
아도니기를비파
ᄌᆞ쳐ᄒᆞ야니ᄡᅵ의

李氏感燕 宋



衛敬瑜早喪妻李氏年二十而寡父母欲嫁強之不從遂剪髮跣足誓不改適所居有雙燕巢之一日忽雌燕孤飛李感之謂曰能如我乎因以縷誌其足明年復來孤飛如故食李之飯棲李之室若是者數年李作詩曰昔年無偶去今春還獨歸故人情意重不忍更雙飛又明年來則李已死燕於其舍哀鳴不已人義之告已死及葬處即往往墓哀鳴不食而死人因瘞之於傍號曰燕冢 事文類聚李氏作詠王京

詩 年少夫亡最可憐爺孃欲嫁節彌堅跣行剪髮終無改凜冽高風罕比肩 唯鷰依棲李氏堂孤飛往復歲年強主人已逝竟誰托不食哀鳴死冢傍

집의갈들이ᄭᅩ버빼의밥을먹고더내여두어히를ᄃᆞᆫ니거ᄂᆞᆯ내ᄲᅵ갈동ᄒᆞ야ᄂᆞᆯ을지어ᄀᆞᆯ오되텟ᄒᆡ예ᄯᅥᆨ이업시가티니올ᄇᆞᆯ의ᄯᅩᄒᆞᆫ로도라오도다ᄐᆡ사ᄅᆞᆷ이칭의ᄃᆞᆼᄒᆞ니ᄎᆞᆷ아ᄡᅡᆼ으로ᄂᆞ더가니ᄒᆞ논ᄯᅩ다ᄒᆞ엿ᄃᆡ너ᄯᅩ그ᄐᆡᆫ의도라온즉니ᄲᅥ임의죽엇논데각제비그집의쉬슬피울기ᄅᆞᆯ마더아니ᄒᆞ니사ᄅᆞᆷ이긔특이녀겨영장ᄒᆞᆫ곳을ᄀᆞ치니제비그무덤의놀아가쉬ᄂᆞᆫ디을ᄭᅩ먹지아니코인ᄒᆞ여주그니사ᄅᆞᆷ이긴ᄒᆞ야녀ᄲᅴ의무덤보히못ᄒᆞ이ᄂᆞᆫ음ᄒᆞ여ᄀᆞᆯ오되연뭉이라ᄒᆞ니라

슈나라됴원히의쳐
최씨샹해례법이잇
더니부쳐피란ᄒᆞ야
댱안으로오다가길
헤셔도적을만나지
아비ᄂᆞᆫ겨호면ᄒᆞ여
ᄃᆞ라나고최씨자피
인배된지라도적이
쳥ᄒᆞ여안해삼고져
ᄒᆞ거ᄂᆞᆯ최씨골오ᄃᆡ
나ᄂᆞᆫᄉᆞ태우의ᄯᆞᆯ이
라엇지도적의계집
이되리오모든도적
이최씨ᄅᆞᆯ상우히동
여미고겁간ᄒᆞ고져
ᄒᆞ거ᄂᆞᆯ최씨욕을볼
가둘여거즛골오ᄃᆡ
이제ᄂᆞᆫ아마도면치

몯ᄒᆞ게ᄒᆞ야시니날
을글비노ᄒᆞ면비말
을들으리라도적이
표지둣표플어노커
놀닓쉬나도적의갈
을야사쥐표남글의
지ᄒᆞ여셔셔골오ᄃᆡ
날을죽이면네여긔
셧ᄂᆞᆫ곳의셔죽으리
니와날을겁박ᄒᆞ면
이칼로셔를쎼시니
죽으리ᄒᆞ거든돌아
들어겁박ᄒᆞ라ᄒᆞ니
도적이감히갓까이
나아가지못ᄒᆞ야멀
니셔여러놈이어즈
리이ᄡᅩ아죽이니라

趙元楷妻崔氏甚有禮度宇文化及之反元楷隨至河北將歸長安至滏口遇盜僅以身免崔爲賊所拘請以爲妻崔曰我士大夫女爲僕射子妻今日破亡自可即死終不爲賊婦群賊毁裂其衣縛於牀簀之上將陵之崔懼爲所辱詐之曰今力已屈當受處分賊遂釋之妻因取賊刀倚樹而立曰欲殺我任加刀鋸若覓死可來相逼賊大怒亂射殺之

詩 流離避賊勢蒼皇 滏口途中遇犬羊 凌辱百端終不屈 凜然高節逼秋霜

權辭只爲力難支 視死如歸不可追 唯有當時一株樹 年年蕭瑟使人悲

당나라니덕무의쳐
ᄇᆡ씨의ᄌᆞᄂᆞᆫ슉영이
니ᄒᆞ부샹셔ᄇᆡ구의
ᄯᆞᆯ이라효ᄒᆡᆼ이지극
ᄒᆞ더니덕의일에좌
죄ᄒᆞ여령남의귀향
가니채예셔방마잔
지혼ᄒᆡ라아비샹소
ᄒᆞ여니이ᄒᆞ니덕의
슉영ᄃᆞ려닐너ᄀᆞᆯ오
ᄃᆡ내도라올니업ᄉᆞ
니그ᄃᆡ다ᄅᆞᆫ사ᄅᆞᆷ을
좃ᄎᆞ라슉영이ᄃᆡᄒᆞ
여ᄀᆞᆯ오ᄃᆡ지아비ᄂᆞᆫ
하ᄂᆞᆯ이라엇지비반
ᄒᆞ리오ᄒᆞ고귀를버
혀ᄆᆡᆼ셰ᄒᆞ고귀ᄒᆞ거
ᄂᆞᆯ좌위븟드리말니
다위양셰시면셕결
니게문안ᄒᆞ고샹해
소셰ᄒᆞ고단장ᄒᆞ기
ᄅᆞᆯ아니ᄒᆞ며일주뎔

淑英斷髮 唐

티틴을닙다가지가
아니ᄒᆞᆫ사ᄅᆞᆷ긔록ᄒᆞᆫ
일을보고사ᄅᆞᆷ드려
닐비ᄀᆞᆯ오ᄃᆡ두사ᄅᆞᆷ
의ᄠᅳᆮ흘렴ᄃᆡ아니ᄒᆞᆫ
기ᄂᆞᆫ부인의용당ᄒᆞᆫ
일이니이거시므ᄉᆞᆫ
귀ᄒᆞᆫ일이라ᄒᆞ고흿
의올ᄇᆞᆺ노고ᄒᆞ더라
십년이더나되지아
비도라오지못ᄒᆞ니
아비강박ᄒᆞ야ᄆᆡ가
ᄒᆞ고져ᄒᆞ거ᄂᆞᆯ멀이
털을버히고밥을먹
지아니ᄒᆞ니그ᄯᅳᆺ을
못춤내앗지못ᄒᆞ야ᄉ
셰니틱뮈틱소의셔
다ᄅᆞᆫ취를취ᄒᆞ엿ᄯᅥ
가후뫼노히여도라
와슉영의슈절홈을
알고후취를내여보
내고슉영을마자오
니라

李德武妻裴氏字淑英安邑公矩之女以孝聞鄉黨德武在隋坐事徙嶺南時嫁方踰歲矩表離婚德武謂裴曰我方貶無還理君必儷他族于此長决矣答曰夫天也可背乎願死無他欲劓耳誓保姆持不許夫姻媦歲時朔望裴致禮惟謹居不御薰澤讀列女傳見述不更嫁者謂人曰不踐二庭婦人之常何異而載之書後十年德武未還矩决嫁之斷髮不食矩知不能奪聽之德武更娶尒朱氏遇赦還中道聞其完節乃遣後妻為夫婦如初

詩 嫁方踰歲樂初酣 坐事移天配嶺南 長訣一言真激切 不歸他族死猶甘

剪髮焦心守一閨 胡為德武納他妻 赦還中道聞完節 相好如初復與齊

당나라번연심의쳐
귀ᄡᅵᄂᆞᆫ양쥬사ᄅᆞᆷ이
라연심이병들매위
ᄡᅵ올오뒤공의병이
듕ᄒᆞ고내춤아ᄒᆞᆯ로
사라공의죽ᄂᆞᆫ양을
엇지보리오연심이
ᄌᆞᆯ오뒤어린ᄌᆞ식들
을길너가문을보젼
ᄒᆞ미올흔다라ᄯᆞᆯ와
죽음은나의ᄇᆞᆷ라ᄯᅩ
배아니로다ᄒᆞ고ᄯᅩ
ᄡᅵ죽더아니ᄒᆞ얏더
니연심이죽으매위
ᄡᅵ반리로만나니도
적이그ᄅᆞᆺ유찰ᄒᆞ올븟

고험박공ᄒᆞ야시기니
위ᄇᆡ곤오되지아비
롤ᄯᆞ라죽지아녓다
가도적의핍박ᄒᆞ믈
보니이ᄂᆞᆫ나의다시
라ᄒᆞ고그손가락을
베히니도적이ᄇᆡᄒᆞ
야겁박ᄒᆞ고져ᄒᆞ야
칼흘목에다히고쥐
히니위ᄡᅵ소릐를놉
히ᄒᆞ야ᄀᆞᆯ오ᄃᆡ개ᄀᆞ
ᄐᆞᆫ도적놈이사ᄅᆞᆷ을
겁박ᄒᆞ니섈리죽으
미나의ᄯᅳᆺ이라ᄒᆞᆫᄃᆡ
도적이인ᄒᆞ야죽이
더라

樊彥深妻魏氏揚州人彥深病魏曰公病且篤不忍公獨死彥深曰死生常道也幸養諸孤使成立相從而死非吾取也彥深卒值徐敬業難陷兵中聞其知音令鼓箏魏曰夫亡不死而逼我管絃禍由我發引刀斬其指軍伍欲彊妻之固拒不從乃刃擬頸曰從我者不死魏厲聲曰狗盜乃欲辱人速死吾志也乃見害

詩 合巹曾成偕老期良人棄化盡相隨佩銘章養諸孫語弔影當時獨自悲

遭時不幸陷兵中逼使彈箏欲玷躬斬指抗辭終遇害留名千古播貞風

왕응은오ᄃᆡᄯᅢ사
ᄅᆞᆷ이니괵쥬ᄉᆞ호
벼ᄉᆞᆯᄒᆞ얏다가괵
쥬셔죽으니그안
해니ᄡᅵ어린아ᄃᆞᆯ
을잇ᄭᅳᆯ고저아비
ᄲᅧᄀᆞᆯ을지고도라
올ᄉᆡ개봉부ᄯᅡ히
니ᄅᆞ러날이졈믈
어ᄆᆞ올에들려ᄒᆞ
니쥬인이그ᄒᆡᆼ셕
을고이히녀겨ᄉᆞᆫ
목을잇ᄭᅳᆯ어내치
ᄂᆞ니ᄡᅵ하ᄂᆞᆯ을울
어러탄식ᄒᆞ야ᄀᆞᆯ
오ᄃᆡ내겨집이되
여ᄂᆞᆷ의게ᄉᆞᆫ을잡
혀더러이ᄒᆞᆫᄉᆞᆫ으

트배옴몸을더러
이러오ᄒᆞ고도쳐
로그ᄌᆞᆯᄋᆞᆫ혀어벼
리며보ᄂᆞᆫ사ᄅᆞᆷ이
ᄂᆞᆫ믈아니ᄒᆞ리업더라
업더라가ᄂᆞᆫ부윤
이듯고ᄌᆞ일ᄋᆞᆫ되
뎐의솜외약을주
어ᄒᆞ의빌ᄋᆞ고고
쥬인을죄주니라

王凝家青齊之間為虢州司戶參軍以疾卒于官家素貧
一子尚幼妻李氏携其子負其遺骸以歸東過開封止旅
舍主人見其婦人獨携一子而疑之不許其宿李顧天已
暮不肯去主人牽其臂而出之李仰天長慟曰我為婦人
不能守節而此手為人執邪不可以一手并汚吾身即引
斧自斷其臂路人見者環聚而嗟之或為之彈指或為之
泣下開封尹聞之白其事于朝官為賜藥封瘡厚恤李氏
而笞其主人

虢參軍一旦卒於官携幼持骸道路艱旅舍日曛遭辱人
仰天長慟涕泗瀾一執節無如斷臂難行人環視諸
爭彈指當時賴有開封奏具命翻為出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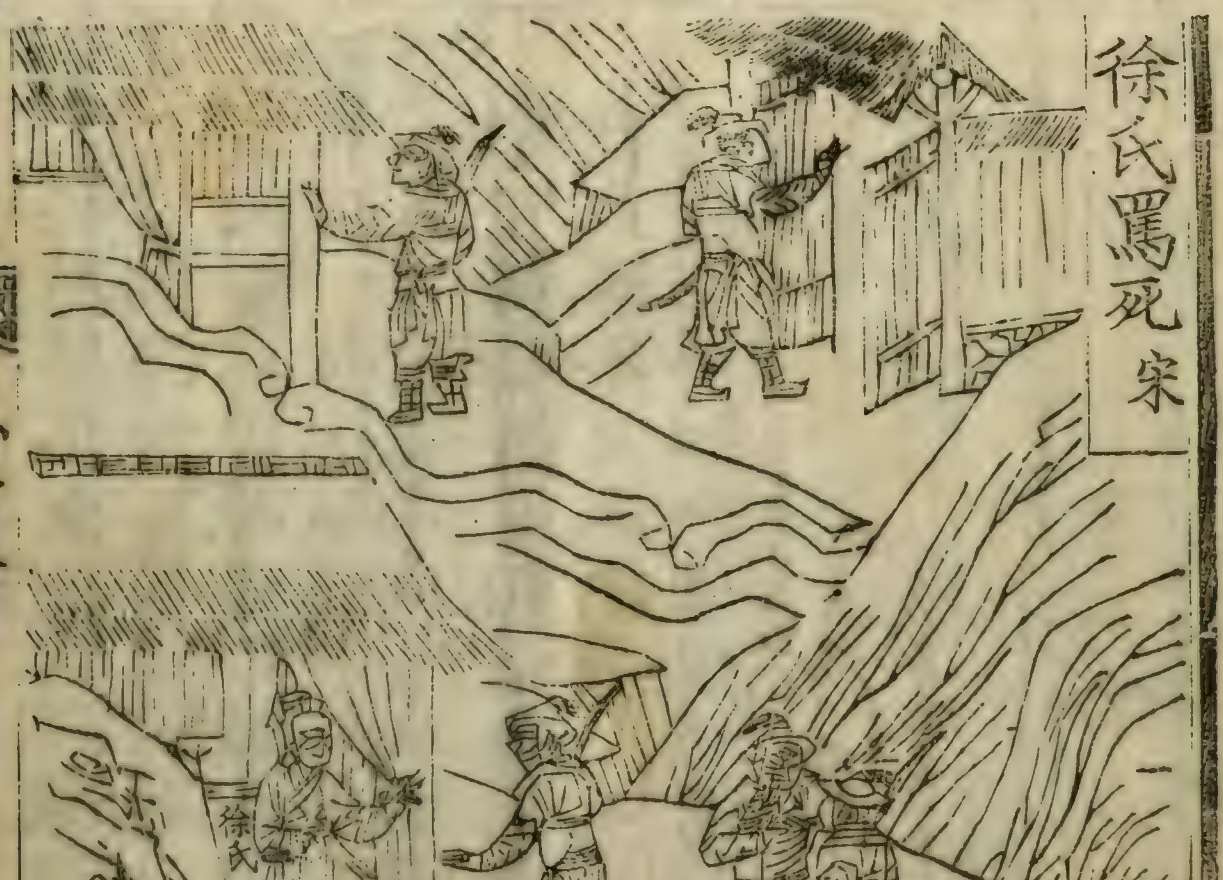
됴비ᄂᆞᆫ송나라패쥬
사ᄅᆞᆷ이라왕츅이라
ᄒᆞᄂᆞᆫ도적이그얼골
고으믈듯고겁박ᄒᆞ
여안해삼고져ᄒᆞ니
됴비날마다울고ᄯᅥ
지져죽기ᄅᆞᆯ구ᄒᆞ되
노적이그ᄯᅳᆺ을앗새
죽이지아니ᄒᆞ고사
ᄅᆞᆷ으로직히니됴비
쥭을ᄐᆞᆷ이업서속여
ᄀᆞᆯ오ᄃᆡ날을안해삼
고져ᄒᆞ거든ᄐᆡᆨ일ᄒᆞ
야비로마ᄌᆞ면ᄒᆡᆼ이
ᄎᆞᄌᆞ리라ᄒᆞᆫᄃᆡ도적
이곳이듯고집으로
도라보내고납치ᄒᆞ
고수레ᄅᆞᆯ보내여됴
비ᄅᆞᆯᄃᆞ려온션됴시
울며집사ᄅᆞᆷ을니별
ᄒᆞ야ᄀᆞᆯ오ᄃᆡ몸을도

죄의게믈어이고어
이참아삼니오뎌블
ᄒᆞ노라ᄒᆞ고술의를
두고가더니들어관
우의술의을열어보
니술의속의셔목을
미야죽엇는지라도
적들이아니놀나리
업셔라

趙氏貝州人王則反聞趙有殊色使人刼致之欲納爲妻
趙日號哭慢罵求死賊愛其色不殺多使人守之趙知不
脫乃紿曰必欲妻我宜擇日以禮聘賊從之使歸其家家
人懼其自殞得禍于賊益使人守視賊具聘幣盛輿從來
迎趙與家人訣曰吾不復歸此矣問其故答曰豈有爲賊
汙辱至此而尚有生理乎家人曰汝忍不爲家族計趙曰
第無患遂涕泣登輿而去至州廨擧簾視之已自縊輿中
死矣尚書屯田員外郎張寅有趙女詩

詩 義色從來禍所嬰賊修婚禮强來迎登輿泣與家人
訣汚辱如斯不苟生　就死從容世所難屹然高義重
於山莫言殊色爲身祟留得香名汗竹間

셔ᄡᅵᄂᆞᆫ송나라당필
의쳐되엿더니대예
오랑캐군ᄉᆞ를거ᄂᆞ
리고만히나와나라
흘범ᄒᆞ여노략ᄒᆞ고
셔ᄡᅵ를잡아협박ᄒᆞ
고쟈ᄒᆞ거ᄂᆞᆯ셔ᄡᅵᄂᆞᆫ
을블음ᄡᅳ고ᄭᅮ지져
ᄀᆞᆯ오ᄃᆡ나라히너희
를극진이ᄃᆡ졉ᄒᆞ거
ᄂᆞᆯ감히대국의들어
와도적질ᄒᆞ니내계
집인타스로비룰머
히지못ᄒᆞᆯ큰ᄒᆞᆫᄒᆞᄂᆞᆫ
지라엇지네게욕을
보고구차히살리오
ᄲᆞᆯ리날을죽이라ᄒᆞᆫ
대도적이노ᄒᆞ여칼



노어즈리야 딜려죽여 강믈의 티지니라

徐氏和州閑中女適同郡張弼建炎三年春金人犯維揚官軍望風奔潰多肆虜掠執徐欲汙之徐瞋目大罵曰朝廷畜汝輩以備緩急今敵犯行在既不能赴難又乘時爲盜我恨一女子不能引劒斷汝頭以快衆憤肯爲汝辱以苟活耶第速殺我賊恚以刃刺殺之投江中而去

詩 官軍奔潰自相屠徐氏蒼皇被執拘不獨當時全淑行義名今日上新圖

大罵言辭出至忱官軍將卒獨何心至今江水鳴鳴咽多少行人痛憤深

숑나라샤방득와쳐
니ᄲᅵ식이아ᄅᆞᆷ답고
싀부모를지셩으로
셤기더니방득이도
젹과ᄡᅡ호다가패ᄒᆞ
여ᄃᆞ라나니도적이
관ᄃᆡ를ᄎᆞ자집의니
ᄅᆞ리ᄂᆞᆫ나ᄲᅡ두아ᄃᆞᆯ
을ᄃᆞ리고산듕의들
어가가시덤블쏙의
숨어셔흙을끠여먹
고잇셔나도적어또
와반등의니ᄅᆞ리병
ᄒᆞ여골오ᄃᆡ니ᄲᅵ를
엇지못ᄒᆞ면온무올
을다죳다히리라니
ᄲᅵ듯고골오ᄃᆡ엇지
내ᄒᆞᆫ몸으로여러새
ᄅᆞᆷ이쭉게ᄒᆞ리오ᄒᆞ
고덤블쏙으로셔나
와살으잡히이니또

뎌미잡까두려다가
숙와가도갓伯나사
룸히나뼈의두야돌
을여ᄅᆞ문치며후는
양을보고위로ᄒᆞ야
닐너ᄅᆞᆫ오딕이리갓
치여이쉬도쟝ᄂᆡ예
在ᄒᆞᆫ사ᄅᆞᆷ의체될ᄲᅥ
시니녹칠졉ᄡᅵ올어
므엇ᄒᆞ리오ᄒᆞᆫ대니
ᄢᅢ두아돌두려날티
ᄀᆞᆯ오되ᄂᆡ총아두지
아비ᄅᆞᆯ쉽기지아니
ᄒᆞᆯᄲᅥ시니ᄂᆡ희힝혀
살아도라가거든ᄉᆡ
어마님을잘셤기라
ᄒᆞ고이날뀌톡외치
마헌으로목을미여
목듕의ᄯᅥ죽으니라

謝枋得之妻李氏安仁人色美而慧通女訓諸書嫁枋得
事舅姑奉祭待賓皆有禮枋得起兵守安仁兵敗逃入閩
中武萬户以枋得豪傑恐有後變購捕之根及其家人李
携二子匿貴溪山荊棘中採草木而食至元十四年冬元
兵蹤跡至山中令曰茍不獲李屠而墟李聞之曰豈可以
我故累人吾出事塞矣遂就俘明年徙囚建康或指李言
曰是當沒入矣李聞之撫二子凄然而泣左右曰雖沒入
將不失為官人妻何泣也李曰吾豈可嫁二夫耶顧謂二
子曰若輩生還善事吾姑吾不得終養矣是夕觧裙帶自
經獄中死

【贊】良人兵敗走閩中匿跡山林固守窮閒說里閭將累
及翻然就獲自當剱　拘囚二載欲捐軀泣訣諸兒善
事姑志節凜然堪勵俗也宜褒奬繪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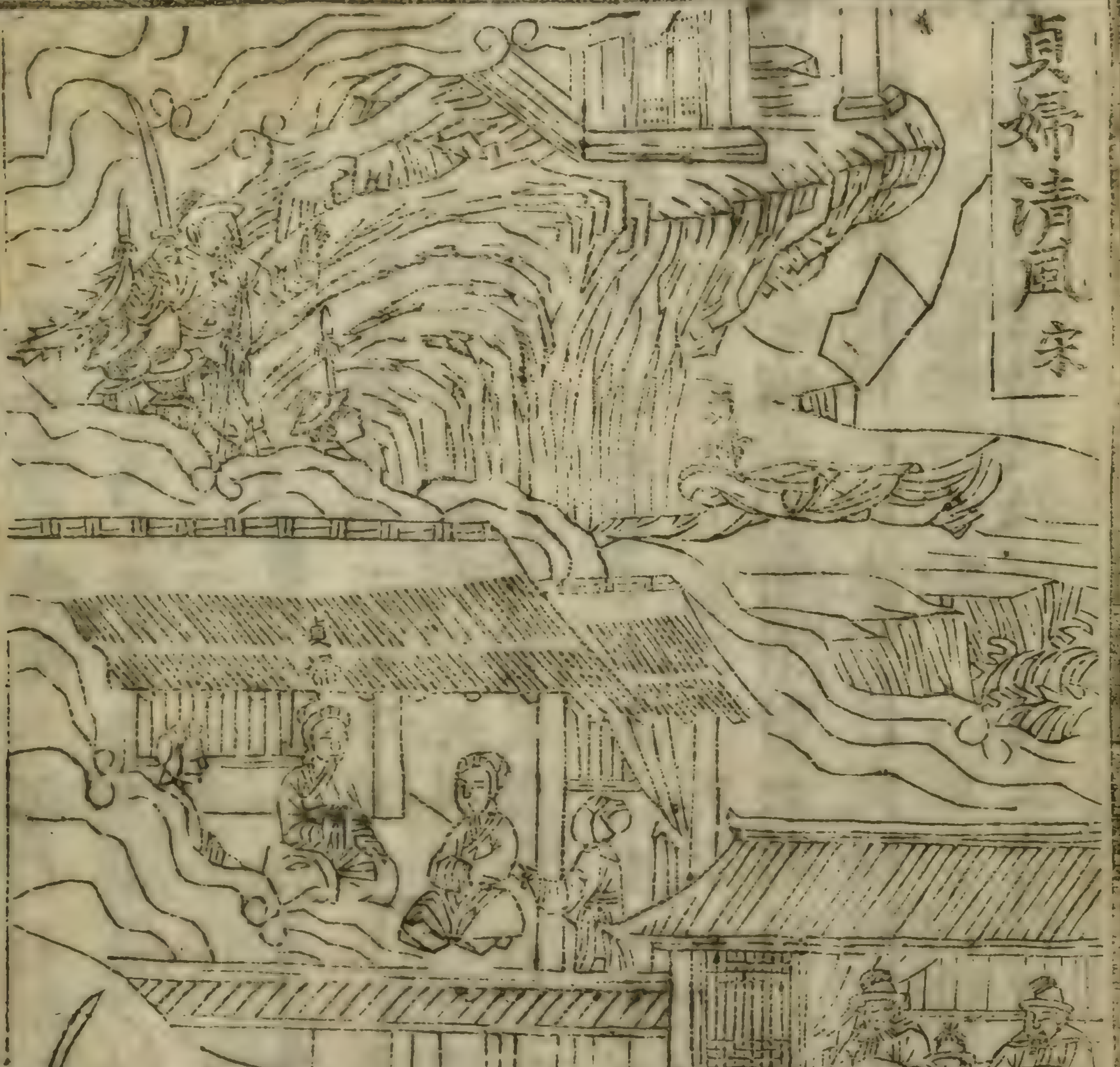
숑나라희양ᄯᅡ해예
인나라장슈뵈안이
군ᄉᆞ를거ᄂᆞ리고더
졔의나ᄀᆞ니더쥬래
슈됴묘발이그취옹
뻐ᄃᆞ려날ᄃᆡ려골오ᄃᆡ
셩이패ᄒᆞ게되거시
나나라신해니셩을
ᄇᆞ리고ᄃᆞ라나지못
ᄒᆞ려니와그ᄃᆡ논몬
져ᄃᆞ라나라ᄒᆞᆫ대옹
뻐골오되그ᄃᆡ듕신이
될션대내엇지듕신
의쳬되디못ᄒᆞ리오
ᄒᆞᆫ가지로죽어ᄃᆡ
하의가좃ᄎᆞ리라
묘발이수쉬골오
되이엇지ᄂᆡ조의
ᄂᆞᆫ히ᄒᆞᆯ배리오옷
뻐골오ᄃᆡ쳔권대
몬져죽ᄉᆞ리라묘
발이울고말렷ᄃᆡ
니시ᄃᆞᆫ날가산을
흣ᄐᆡ결너와죵들

을ᄂᆞᆫ화쥬ᅀᅥ보내
고도젹이셩밧쉬
급치니르거ᄂᆞᆯ묘
발이새베니리나
쉬안슈희글을배
몰소뎌님금을춤
아비반치못ᄒᆞᆯ거
시오셩을가히항
복지못ᄒᆞᆯ지라부
븨ᄒᆞᆫ가지로죽어
졀의롤빵으로일
오노라ᄒᆞ고드뎌
여옹뻬로텨브리
홈ᄭᅴ목ᄆᆡ야죽으
니쳔비둘히이쉬
그주검의울어골
오ᄃᆡ사라쉬대숑의
사롬이되고죽어
도대숑귀신이되
엿또다ᄒᆞ티라빅
안이셩의들어와
둧고긔특이티며
판곽을ᄀᆞ초기삽장
ᄒᆞ고제ᄒᆞ고가니라

元兵徇池州通判趙卯發知事不濟謂妻雍氏曰城將破
吾守臣不當去汝先出走雍曰君爲命官我爲命婦君爲
忠臣我獨不能爲忠臣之婦乎寧相從於地下卯發笑曰
此豈婦人女子所能也雍曰吾請先君死卯發笑止之明
日乃散其家貲與弟姪僕婢悉遣之及師薄城卯發晨起
書几上曰君不忍叛城不敢降夫婦同死節義成雙遂與
雍氏盛服同縊從容堂學有二士哭其屍曰生爲大宋人
死爲大宋鬼何以洗此汚淸溪一泓水明日伯顔領兵入
城深歎惜之命具棺衾合葬祭其墓而去

詩 元兵南下陷州城去住分明繫死生命婦命官同日
縊相從地下是眞情　池州倅趙與妻雍節義成雙寧
躡蹤大宋人爲大宋鬼從容堂上自從容

왕뎡부ᄂᆞᆫ송나라님히
사ᄅᆞᆷ의쳐라송이망ᄒᆞᆯ때
에그싀부모와지아비
와도적의게잡히여주
으니도적의강싊뎡부
의고음을보고핍박ᄒᆞ
고저ᄒᆞ거ᄂᆞᆯ뎡뷔통곡
ᄒᆞ고주으려ᄒᆞ니도적
이죽음을마져허잡아가
도고저ᄒᆞᄂᆞᆫ지라뎡뷔
죽음을틈을엇지못ᄒᆞ여
속여ᄀᆞᆯ오ᄃᆡ날을쳡
을삼고저ᄒᆞᆷ은비록잘
됨기파ᄒᆞ미여니와
베석부모와지아비거
상을닙디못ᄒᆞ여시니
이ᄂᆞᆫ한ᄂᆞᆯ몰오ᄂᆞᆫ죄인
이라ᄒᆞᄂᆞᆯ몰오ᄂᆞᆫ사ᄅᆞᆷ
을므어세쓰려ᄒᆞᄂᆞ뇨
밧을거상을닙게ᄒᆞ면
탈상ᄒᆞᆫ후의ᄂᆡ말을드르으
리라ᄒᆞᆫ대도적이허락



ᄒᆞ되직희기ᄅᆞᆯ더옥굿
게ᄒᆞ더니인ᄒᆞ야잡아
가져고졔나라ᄒᆞ로갈
셔쳥풍령이라ᄒᆞᄂᆞᆫ뫼
희너ᄅᆞ러ᄂᆞᆫ티ᄇᆡ손샹
뎍을ᄭᅢ믈어피ᄅᆞᆯ내여
돌헤글을ᄡᅳ고남녁흘ᄇᆞ라
ᄇᆞ라며통곡ᄒᆞ고인ᄒᆞ여
ᄇᆡ회예ᄠᅥ러뎌주그니피
흘니돌의ᄌᆞᄌᆞ인ᄒᆞ야
돌이되엿다가ᄂᆞᆯ으ᄒᆞ우
슴ᄒᆞ고비올적이면피
블근ᄌᆞ사나ᄯᅳᆺ처엄ᄀᆞ
ᄐᆞ더라후의뎡표ᄒᆞ야
뎡ᄇᆡ라ᄒᆞ고비셰워졔
ᄒᆞ고그봉을곳쳐쳥풍
령이라ᄒᆞ니라 일홈ᄒᆞ령
[illegible]
[illegible]

王貞婦夫家臨海人德祐二年冬元兵入浙東與其舅姑
夫皆被執既而舅姑與夫皆死主將見婦皙美欲內之婦
號慟欲自殺爲奪挽不得死夜令俘囚婦人雜守之婦防
謂主將曰以吾爲妻妾者欲令終身善事也吾舅姑與夫
死而不爲之衰是不天也不天之人將焉用之願請爲服
期即惟命若不聽我我終死耳主將恐其誠死許之然防
守益嚴明年春師還挈行至嵊青楓嶺下臨絶壑婦待守
者少懈囓指出血書字山石上南望慟哭自投崖下而死
後其血皆漬入石間盡化爲石天且陰雨即墳起如始書
時元至治中旌爲貞婦郡守立石祠嶺上易名曰清風嶺

詩 不幸元兵入浙東　舅姑夫壻陷軍中　自將皙美知難
免　百計陽言請服終　行至青楓險且危　血書山石獨
天知　一從慟哭投崖死　嶺上清風萬古吹

숑나라냥시ᄂᆞᆫ님
쳔ᄉᆞᄅᆞᆷ이니왕ᄡᅵ
의쳬되연디두어
ᄃᆞᆯ의난리ᄅᆞᆯ만나
병亂다ᄉᆞᆯᄋᆞ잡히
이니도적쳔회라
ᄒᆞᄂᆞᆫ놈이냥시ᄅᆞᆯ
핍박ᄒᆞ고져ᄒᆞ거
ᄂᆞᆯ냥ᄲᅵ소ᄅᆡᄀᆞᆯ오
ᄃᆡ지ᄉᆞᄇᆡ이시니
부부의령ᄋᆡᄌᆞᆷ아
지ᄉᆞ비잇ᄂᆞᆫ더니
ᄅᆞᆯ좃디못ᄒᆞᆯ쎄치
너지ᄉᆞ비ᄅᆞᆯ도라
보내ᄂᆞ세야ᄃᆡᄅᆞᆯ
좃ᄎᆞ리라ᄒᆞᆫ대쳔
회ᄭᅩᆺ이ᄃᆞᆺ고곰과
비단을지아비ᄅᆞᆯ
주고傳송ᄒᆞ나흘

주ᄋᆞᆫ보감을삼아
결ᄒᆞ엿더ᄅᆞ도적
이해치못ᄒᆞ게ᄒᆞ
야노하보내거ᄂᆞᆯ
방ᄡᅵ지아비멀리
가만ᄒᆞ야ᄂᆞᆫ쳔호
ᄅᆞᆯ슈지쥐옴오되
목버힐놈아내지
아비도려명
셰ᄒᆞ여시니텬디
와귀신이실로아
ᄂᆞᆫ지라죽을디언
텽ᄇᆡᄯᆞᆯ을못지아
니ᄒᆞ리라ᄒᆞᆫ대칠
회대로ᄒᆞ야ᄉᆞᆨ이
라

王氏婦梁臨川人歸夫家纔數月會元兵至與夫約曰吾
遇兵必死義不受汙辱之夫婦被掠有軍千戶强使從
己婦紿曰夫在伉儷之情有所不忍乞歸之而後可千戶
以所得金帛與其夫而歸之并與一矢以却後兵約行十
餘里千戶即之婦拒且罵曰斫頭奴吾與夫誓天地鬼神
寔臨之此身寧死不可得也因奮搏之乃被殺

贊 梁氏于歸數月餘　元兵孔熾若桑虛　自知未遂偕老
許　誓死蒼天實鑑之　家室俱爲虜所擒　緩辭元與活
夫心　忌生抗節誰能犯　磊落貞姿想至今

금나라포찰씨의일
음은명슈니완안댱
낙의쳬라댱낙이님
금을좃차나가고집
의어린ᄌᆞ식이이시
니뎐의내친쳑스씨
의소싱이라명슈ᄉ
강ᄒᆞ기롤긔츌ᄀᆞᆺ치
ᄒᆞ더니ᄯᅢ에쵸닙가
이라ᄒᆞᄂᆞᆫ도적이날
어나모든관원의안
해롤모라다가얼골
고으니롤골히ᄂᆞᆫ지
라포칠씨면치못홀
줄을알고어린ᄌᆞ식
을죵의게맛치고지
믈을만히주고옷과
관곽을ᄀᆞᆺ초와주고

明秀具棺 金

영결ᄒᆞ여ᄒᆞᆫ오래차
납이부도의일을ᄒᆞ
야시름의쳐쳡을겁
박ᄒᆞ고이지군ᄉᆞ울
거ᄂᆞ라고ᄃᆡᆼ밧ᄋᆡ다
ᄃᆞ라시니ᄂᆡ아마도
면치못ᄒᆞᆯᄭᅡ시프니
내어이ᄎᆞᆷ아몸을티
리이리오내죽어지
아비롤쳐ᄇᆞ리지아
니ᄒᆞ리니디히이ᄌᆞ
식을잘기ᄅᆞ라ᄒᆞ고
인ᄒᆞ야목을미야죽
으ᄃᆡ죠곰도죽기롤
이리이티기ᄂᆞᆫᄉᆞ식
이업ᄲᅦ죵용이죽으
니나히스믈닐곱이
러라

蒲察氏字明秀完顔長樂之妻也哀宗遷歸德以長樂為總領將兵扈從長樂一子在幼出妻紫氏所生也明秀撫育如己出崔立之變驅從官妻子入自閱之蒲察聞以幼子付婢僕且與之金幣親具衣棺祭物與家人訣曰崔立不道強入妻女兵在城下吾何所逃惟一死不負吾夫耳汝等惟善養幼子遂自縊而死欣然若不以死為難者年二十七

詩 良人扈從逝無期義子零丁幼且癡撫育真能如己出生平母道儘無虧 逃難全身計已窮幼兒金幣付家僮自治衾具從容死千載爭欽烈婦風

원나라댱의부ᄂᆞᆫ졔남
사ᄅᆞᆷ이라니오의톄되
엿티니지아비족하빙
이와호기지로복통ᄯᆡ
허유살이사다가거긔
ᄲᅧ죽으니댱배싀어버
이셤기기를지극히ᄒᆞ
여병들매비번ᄃᆞᆯ이ᄉᆞᆯ
을버혀먹이되죽으매
상쟝을테로극진이ᄒᆞᆫ
후의탄식ᄒᆞ여골오ᄃᆡ
내지아비현리밧긔셔
죽으되내죽지아니홈
은싀어버이를위ᄒᆞ미
러니이제싀어버이죽
고지아비ᄒᆞᆫ끌이면ᄯᆡ
힘부리지니내엇지죽
기를앗ᄭᅴ리오ᄒᆞ고이
에ᄊᆞ힌어름우희누어
랑ᄲᅴᄒᆞ야골오되하놀
이비지아비ᄲᅧ를어드
리라ᄒᆞ면내어러죽지

아니ᄒᆞ리라ᄒᆞ고ᄒᆞᄂᆞᆫ
이범도록누어시되죽
지아니ᄒᆞ니이에본온
ᄉᆞ혐을조ᄎᆞᄒᆞ뼈ᄡᅥ닙
고지아비ᄒᆞᆫ필을ᄎᆞᄌᆞ
리ᄒᆞ갈시마은밤만의
복빙싸혀녀ᄅᆞ리빙이
롤만나지아비무친ᄀᆞᆫ
ᄃᆡ롤ᄀᆞᄅᆞ치거ᄂᆞᆯ헤골
ᄎᆞᄌᆞ리ᄒᆞ니가시딤블
이베탁ᄒᆞ맛텬ᄃᆞ지라
당ᄒᆡ이동ᄒᆞ여거의죽
게되엿티내지아비빙
혼이ᄒᆞ아히게놀여ᄯᅡᇰ
베두리죽던말과ᄒᆞᆫ골
ᄋᆞᆺᄂᆞᆫ곳을내르기ᄂᆞᆯ그
말대로ᄎᆞ자ᄒᆞ골을엇
고빌어몰오뒤진실로
내지아비ᄒᆞᆫ골일션재
집의들어염옴ᄀᆞᆺ치ᄎᆞ
고갓폴ᄀᆞᆺ게보ᄐᆞ라ᄒᆞ
이의연그리ᄒᆞ티라나
라히그집을령은ᄒᆞ니
라

張義婦濟南人歸里人李伍伍與從子零成福寧來發死
成所張養舅姑甚至父母舅姑病凡四刲股肉救不懈及
死喪葬無遺禮既而歎曰妾夫死數千里外不能歸葬者
以舅姑父母在無所仰故也今父母舅姑死而夫骨暴棄
遠土妾敢愛死乎乃卧積氷上誓曰天若許妾取夫骨雖
寒甚當不死踰月不死乃大書其事于衣以行行四十日
至福寧見零問夫葬地則榛莽四塞張哀慟欲絶夫忽降
于童告張死時事且指骨所在處張如言發得之持骨祝
曰爾信妾夫耶入口當如氷雪黏如膠已而果然官義之
上府旌門復家

詩 公姑父母病難醫四把霜刀刲玉肌豈獨養生能不
懈更治喪祭禮無虧 千里夫屍久未收卧氷為誓遂
行求至誠能致精靈感果得遺骸葬吉丘

원나라유ᄉᆞ연의
쳐동씨ᄂᆞᆫ엄츄사
룸이라ᄉᆡ어미셩
이엄ᄒᆞ여쥐ᄅᆞᆯ박
ᄃᆡ호되티옹공슌
ᄒᆞ여그ᄯᅳᆺ을거ᄉᆞ
리지아니ᄒᆞ티니
지졍[illegible]십삼년
의모적이돌어와
노략ᄒᆞ여ᄉᆞ연의
집의니ᄅᆞ니동씨
몸으로ᄉᆡ어미ᄅᆞᆯ
골이온대도적이
동씨ᄅᆞᆯ잡아겁간
ᄒᆞ효ᄒᆞ거ᄂᆞᆯ동
씨크게ᄭᅮ짓고굴
치아니ᄒᆞ니도적
이칼로ᄡᅥ그ᄂᆞᆺ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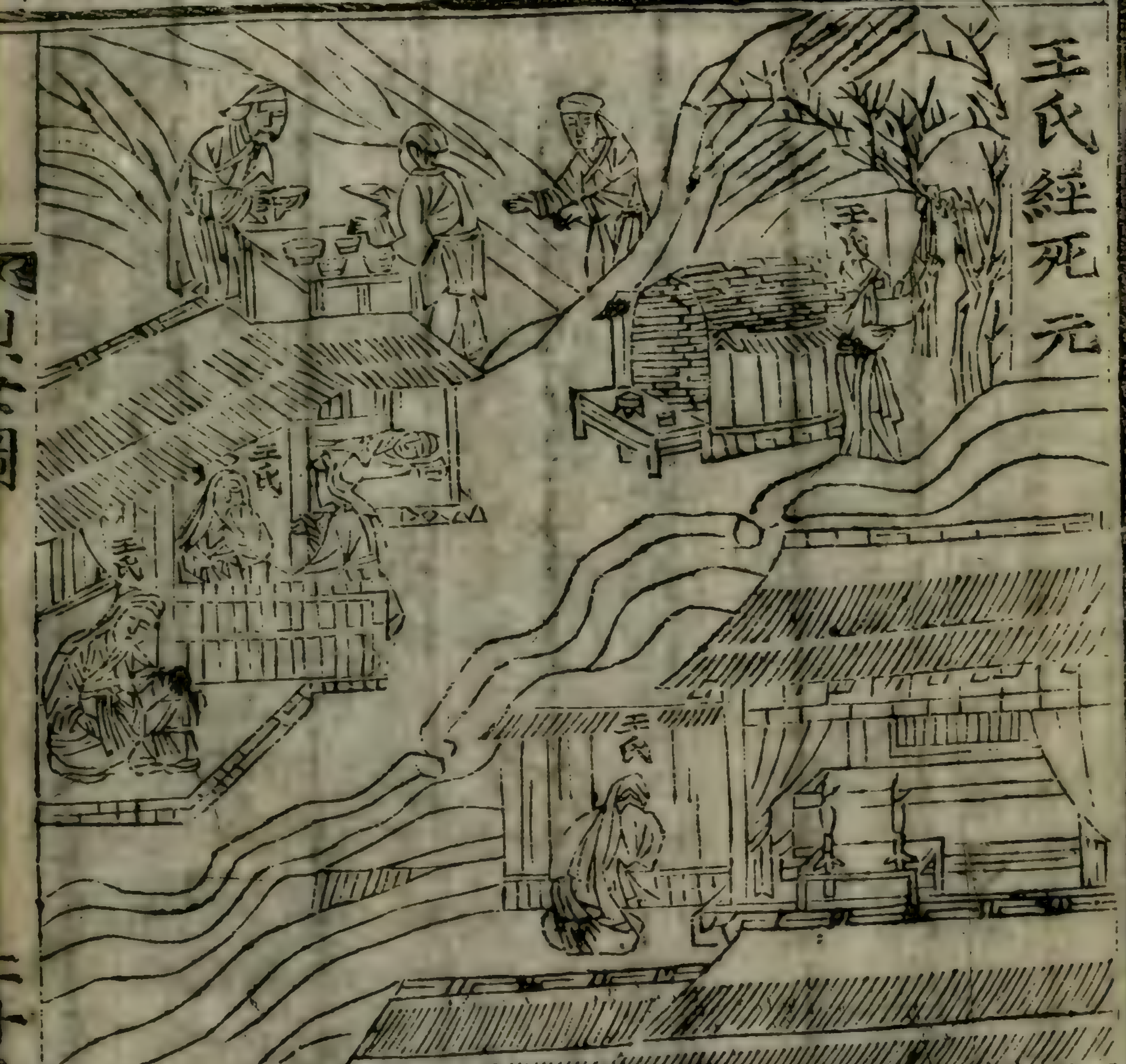
董氏皮面 元

버히되ᄯᅥ짓기를
긋치디아니ᄒᆞᆫ대
도적이그ᄂᆞᆺ기죽
을벗기고도라가
니잇튼날죽으니
라

兪士淵妻童氏嚴州人姑性嚴待之寡恩童柔順以事之無少拂其意者至正十三年賊陷威平官軍復之已乃縱兵剽掠至士淵家童以身蔽姑衆欲汙之童大罵不屈一卒以刀擊其左臂愈不屈又一卒斷其右臂罵猶不絶衆乃皮其面而去明日乃死

詩 天性堅貞婦道成事姑承順發深情官軍摽掠無人遏能捍艱危不愛生 衆兵交刃入門欄罵賊危言出肺肝斷臂猶能終不屈 稱令聞者髮衝冠

원나라혜ᄉᆞ현의
쳐왕ᄡᅵᄃᆞᄃᆡ도사
ᄅᆞᆷ이라ᄉᆞ현이병
이극ᄒᆞ매왕ᄡᅵᄀᆞᆯ
오ᄃᆡᄃᆡ들ᄋᆞ니병
든사ᄅᆞᆷ의ᄯᅩᆼ이ᄡᅳ
면ᄒᆞᆯ민다ᄒᆞ고그
ᄯᅩᆼ을맛보니맛시
도지라왕ᄡᅵ타옥
근심ᄒᆞ티ㅣᄉᆞ현
이왕ᄡᅵᄃᆞ리보네
ᄀᆞᆯ오ᄃᆡ내죽은후
의협아돌을잘결
비조라기든기가
ᄒᆞ야갈아ᄒᆞ내왕
ᄡᅥ울ᄯᅢᄅᆞᆯ오ᄃᆡ그
ᄃᆡ엇지이틴말을
ᄒᆞᄂᆞ뇨그ᄃᆡ죽으
면내호가지로죽
을ᄯᅢ니비록내죽
어도그ᄃᆡ아조미
이시니죡히이아



히롤기ᄅᆞ리라히티나ᄉᆞ현이죽으매왕ᄡᅵ무덤겯히이뎌머리비ᄉᆞ며ᄂᆞᆺ시씨롤ᄒᆞ지아니ᄒᆞ고슬허ᄒᆞ기롤톄에넘게ᄒᆞ고쳡아ᄃᆞᆯ을겯히두어지셩으로기ᄅᆞ더니그아히ᄯᅩ죽으니울어ᄀᆞᆯ오ᄃᆡ이제ᄂᆞᆫ다시ᄇᆞ랄ᄲᅵ시업다ᄒᆞ고ᄯᅥ을디ᄅᆞ려ᄒᆞ거놀집사ᄅᆞᆷ이급히구ᄒᆞ여죽디못ᄒᆞ고인ᄒᆞ여삼년을ᄆᆞᆺᄎᆞ니친귀다졔믈을가지고ᄉᆞ현의무덤의졔ᄒᆞ티나졔롤펄ᄎᆞ매왕ᄲᅵ임의남긔목을ᄆᆡ여죽엇더라

惠士玄妻王氏大都人士玄病革王曰吾聞病者糞苦則愈乃嘗其糞頗甘王色愈憂士玄囑王曰我病必不起前妻所生子汝善保護之待此子稍長即從汝自嫁矣王泣曰君何為出此言邪說有不諱妾義當死尚復有他說乎君有兄嫂此兒必不失所居數日士玄卒王居墓側蓬首垢面哀毀逾禮常以妾子置左右飲食寒煖惟恐不至歲餘妾子亦死乃哭曰無復望矣屢引刀自殺家人驚救得免至終喪親舊皆携酒禮祭士玄于墓祭畢衆欲行酒王已經死於樹矣

詩 病勢纏綿已向深嘗糞甘憂恩更欽欽迄生閱歲無他意不負良人囑子心

夫死廬墳正致哀遺孫亦逝已焉哉終喪便爾自經死親舊無由行酒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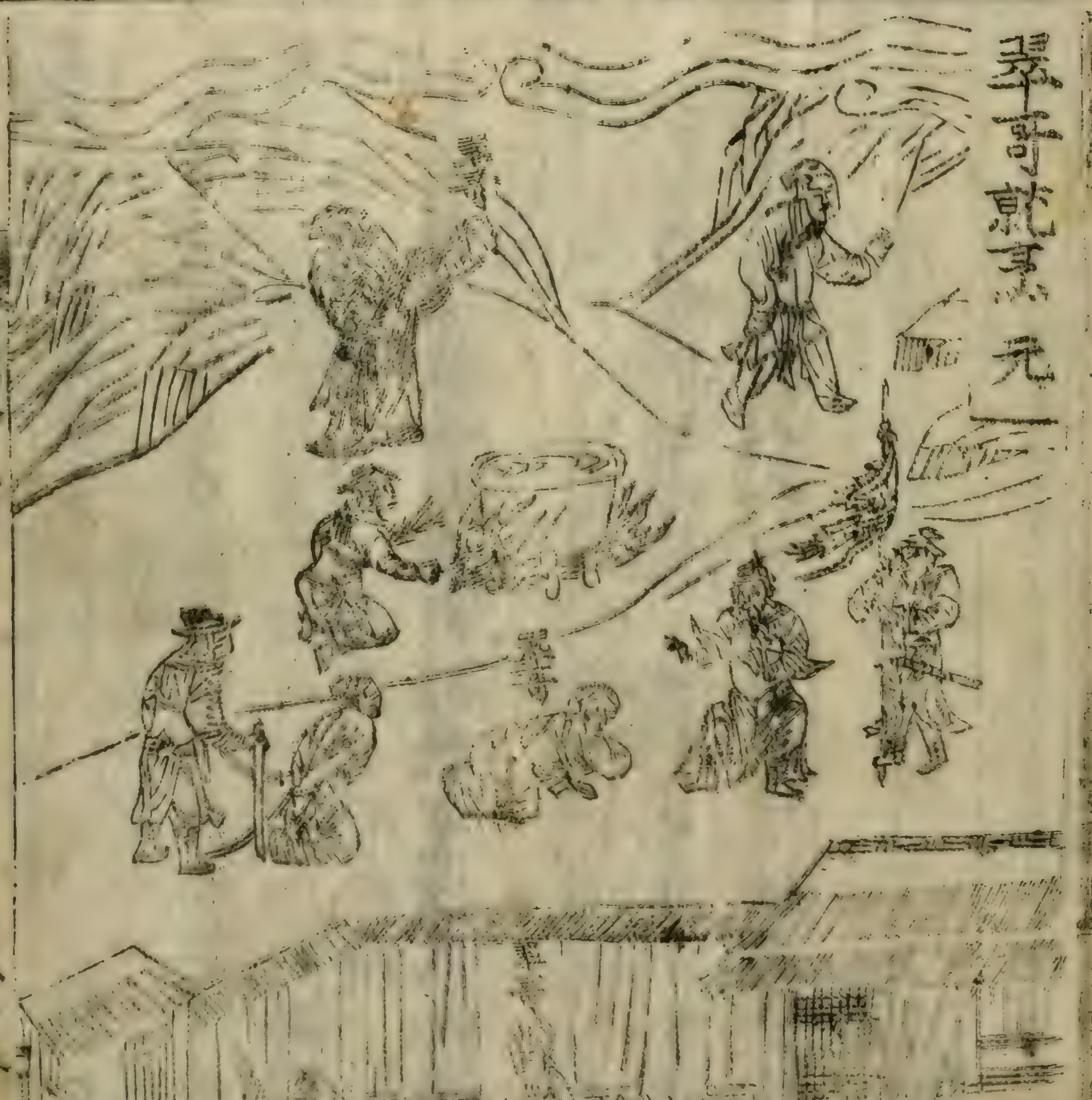
원나라화룡긔쳐쥬
씨ᄂᆞᆫ향쥬ᄉᆞᄅᆞᆷ이라
지졍십뉵년의도적
강ᄉᆞ셩이군ᄉᆞᄅᆞᆯ거
ᄂᆞ리고향쥬ᄅᆞᆯ쳐니
그ᄯᆞᆯ이어미ᄃᆞ려닐
오ᄃᆡ도적이급히와
혐이합물ᄒᆞ게ᄒᆞ여
시니내어미ᄅᆞᆯ니별
ᄒᆞ고ᄎᆞᆷ변죽으려ᄒᆞ
ᄂᆞ이다ᄒᆞ더니이윽
ᄒᆞ여도적이모든계
집을노략ᄒᆞ야모라
다가쥬씨의집의맛
ᄇᆞᆯ몬오미ᄂᆞᆯ뢰이작

ᄒᆡ여두라내져믈ᄭᆡ
도라오리라ᄒᆞ니쥬
ᄡᅵ욕을볼가두려ᄯᆞᆯ
로더브러ᄒᆞᆫᄢᅴ목을
ᄆᆡ여죽으니쳡풍ᄡᅵ
쥬ᄡᅵ모ᄌᆞ의죽음을보
고탄ᄒᆞ여ᄀᆞᆯ오ᄃᆡ내
어ᄂᆞ참아ᄒᆞᆫ자살며
고ᄒᆞ고ᄯᅩᄒᆞᆫ목ᄆᆡ
여죽고즁긔의아의
쳐ᄎᆡᄡᅵ어린아ᄃᆞᆯ을
안고유모탕ᄡᅵ로더
브러다목ᄆᆡ여죽으
니저믄후의도적이도
라와죽엄이집의마
ᄃᆞᆨᄒᆞ여심을보고크
게놀나고그집의잇
ᄂᆞᆫ저믈만노략ᄒᆞ여
가니라

黃仲起妻朱氏杭州人至正十六年張士誠寇杭州其女
臨安奴倉皇言曰賊至矣我別毋求一死也俄而賊驅諸
婦至其家且指朱氏毋子曰爲我看守日暮我當至也朱
聞之懼受辱遂與女俱縊死妾馮氏見毋子已死嘆曰我
生何爲徒受辱耳亦自縊死繼而仲起弟妻蔡氏抱幼子
玄童與乳毋湯氏皆自縊及暮賊至見諸屍滿室遂盡掠
其家財而去

詩 兇徒暴橫寇杭州日暮倉皇抱百憂守義輕生求一
死清標凛烈照千秋　臨危孰不欲安全毋子俱亡家
可憐俄頃數人相繼死一家高義耀青篇

원나라ᄇᆡᆨ룡의의
녀뉴씨의일홈은
취가니방산사ᄅᆞᆷ
이라지졍이십년
의시졀이참혹ᄒᆞᆫ
흉년으로ᄇᆡᆨ셩이
다굴머죽더니도
적이ᄉᆞᄅᆞᆷ어과ᄯᆞᆼ
이업셔균시자굴
ᄂᆞ니도젹의ᄶᅡᆼᄯᅴ
뉴씨ᄯᆞᆯᄶᅡᆸ아솟마
덕오려ᄒᆞ거ᄂᆞᆯ뉴
ᄡᅵ허리업ᄃᆡ여ᄋᆞᆯ
ᄯᅢ어ᄅᆞᆫ오려ᄒᆡ
저아ᄒᆡᄆᆞᆯ살오됨
내집의ᄌᆞᆼᄒᆞᆫ향과
박ᄒᆞᆫ만ᄯᅩ되ᄒᆞᆫ
소극못여시미라



ᄒᆡ연ᄒᆞ이며ᄒᆞ므
도죽이뭇지아니
ᄒᆞ거ᄂᆞᆫ뉴뼈ᄅᆞᆯ오
되지아비ᄂᆞᆫ몸이
여외고져ᄒᆞ니믜
염죽지아니ᄒᆞ거
라비ᄅᆞᆯ으니뎌겹
이ᄉᆞᆫ저고벗쳐겁
으면맛치됴ᄆᆡᄒᆞ
니내술지고검으
니지아비ᄃᆡ신의
숨겨지라ᄒᆞᆫ대도
젹이그지아비를
ᄂᆞᆺ고뉴시ᄅᆞᆯ숨므
니라

李仲義妻劉氏名翠哥房山人至正二十年縣大饑平章
劉哈剌不花兵乏食執仲義欲烹之仲義弟馬兒走報劉
氏劉遽往救之涕泣伏地告於兵曰所執者是吾夫也乞
矜憐之貸其生吾家有藏醬一甕米一斗五升窖于地中可
掘取之以代吾夫兵不從劉曰吾夫瘦小不可食吾聞婦
人肥黑者味美吾肥且黑願就烹以代夫死兵遂釋其夫
而烹劉氏

詩 元季年飢人起兵人將相食競紛爭釋夫心切生堪
捨懷慨持身自就烹代夫身命即捐軀遂使奸兇噬
我膚高義感人人自服閭風百世盡嗟吁

녕씨ᄂᆞᆫ 산나 읍현 ᄌᆞ리라 사
ᄅᆞᆷ의ᄯᆞᆯ이라 나히 열엿ᄉᆞᆺ
신뉴진ᄒᆞ와 혼인을 ᄐᆡᆼᄒᆞ
여 납쳐 만ᄒᆞ고 쵸례ᄅᆞᆯ
못 ᄆᆞᆺ쳐 ᄒᆞ엿더니 진이
죽으매 녕씨 부음을 듯
곡슬피 울며 그부모ᄯᅩ
려 닐너 골오ᄃᆡ 내 들으
니 블ᄐᆡ노ᄂᆞᆫ 두 지아비ᄅᆞᆯ
셤기지 아니 ᄒᆞᆫ다 ᄒᆞᄂᆞᆫ
니 내 비록 뉴가로 더브
러 동뇌연을 ᄒᆞ지 못ᄒᆞ
여시나 임의 납ᄎᆡᄅᆞᆯ 밧
아 혼인을 ᄐᆡᆼᄒᆞ엿ᄂᆞᆫ지
라 ᄐᆡ블 힝ᄒᆞ여 주고 그
어버이 ᄂᆞᆯ거의 지흘ᄯᅳᆨ
업ᄯᅡᄒᆞᄂᆞ 내 엇지 ᄎᆞᆷ아
귀ᄅᆞᆯ 빗받ᄒᆞ고ᄅᆞᆯ 은집

사ᄅᆞᆷ이되리오ᄒᆞ니가의
가취ᄉᆡ부모ᄅᆞᆯ보양ᄒᆞ
야지이다ᄒᆞ고굿이텽
ᄒᆞᆫ대부뫼허락ᄒᆞ거ᄂᆞᆯ
드듸여그집의가셔지
아비빈소에울고장례
ᄒᆞᆫ을베로ᄒᆞ고질삼ᄒᆞ
야ᄆᆞᆺ난음식으로싀부
모ᄅᆞᆯ셤기기ᄅᆞᆯ오십이년
을ᄒᆞ니나라히그문에
졍표ᄒᆞ야골오ᄃᆡ뎡졀
이라ᄒᆞ니라

寗氏女許嫁劉眞兒未嫁而眞兒死寗氏年十六聞訃哭甚哀既而謂父母曰古云烈女不更二夫吾雖未與之醮然媒妁聘幣父母之命皆已定矣今不幸而死其父母老無所依吾豈忍背之操他人家箕箒耶遂請往夫家侍養舅姑父母初未之許寗請益堅卒許之寗至其家哭臨葬祭無違禮執婦道甚恭織紝以供甘旨如是者凡五十二年事聞詔旌表其門曰貞節

贊 已成媒娉有歸期不幸夫亡未醮時何忍背之辭甚切始終養祭禮無虧　五十餘年奉舅姑平生志節竟無渝盛朝旌表褒嘉至千載貞名孰與俱

도미라ᄒᆞᄂᆞᆫ사ᄅᆞᆷ은ᄇᆡᆨ졔
나라ᄇᆡᆨ셩이어라도벼슬ᄒᆞᄂᆞᆫ됴
치라、쳬얼굴이ᄀᆞᆸ고졀
ᄒᆡᆼ이잇더니왕이도미ᄃᆞ
려닐티ᄀᆞᆯ오ᄃᆡ티지아ᄆᆞ
리졀ᄒᆡᆼ이잇셔ᄒᆞ야도그
윽ᄒᆞ고곳의셔달내면ᄆᆞᄋᆞᆷ
을동치아니ᄒᆞ리업ᄂᆞ니
ᄇᆡ쳐ᄅᆞᆯ내말노달내미엇
쳐ᄒᆞ뇨ᄒᆞ며ᄀᆞᆯ오ᄃᆡ쇠의
쳐ᄂᆞᆫ죵、노변치아니ᄒᆞ
리이다왕이시험코져ᄒᆞ
여도미ᄅᆞᆯ머믈어두고ᄒᆞᆫ
신하ᄅᆞᆯ님금의옷ᄉᆞᆯ닙혀
밤의내야보내여닐너ᄀᆞᆯ
오ᄃᆡ내네지아비로더브
러강긔두어나기ᄒᆞ야네
ᄅᆞᆯ어더시니님금의쳡
이되미엇더ᄒᆞ뇨ᄒᆞ고인
ᄒᆞ여쳡교ᄒᆞ려ᄒᆞ니쳬ᄅᆞᆯ
오ᄃᆡ내엇지감히님금을
거ᄉᆞᆯ니오쳥컨대옷ᄉᆞᆯᄅᆞᆯ
야닙고들어오리이다ᄒᆞ

彌妻啖草 百濟

고ᄇᆞᆺᄀᆞ론나갓치죵ᄒᆞ나
ᄒᆞᆯ단장ᄒᆞ여들여보내니
왕이속은줄을노ᄒᆞ이ᄃᆡ
겨도미의눈을ᄲᅢ히고ᄇᆡ
예실어다가믈의ᄯᅴ오고
그쳐를잡아다가겁박ᄒᆞ
려ᄒᆞ니ᄎᆡ조오ᄃᆡ이제는
지아비를일허시니왕의
쳡이되미영ᄒᆡᆼᄒᆞ옵거니
와오ᄂᆞᆯ은뫼시디못ᄒᆞᆯ
일이잇ᄉᆞ오니ᄂᆡ일을기
ᄃᆞ리쇼셔왕이곳이듯고
허락ᄒᆞ거ᄂᆞᆯ마니도망
ᄒᆞ이믈ᄀᆞ의가하ᄂᆞᆯ을블
으고통곡ᄒᆞ더니문득ᄇᆡ
ᄒᆞᆫ나히오거ᄂᆞᆯ을나ᄐᆞ고
호ᄉᆞᆷ의다ᄃᆞ르니지아비
죽디아니ᄒᆞ고그ᄉᆞᆷ의잇
ᄯᅥ놀만나플블희를ᄏᆡ야
먹고ᄐᆞᆫ명ᄒᆞ다가도망ᄒᆞ
야고구려ᄯᅡ라[illegible]히
들이기ᄌᆞᆼ신ᄒᆞ니라

都彌妻義麗亦有節行蓋婁王聞之語都彌曰婦人雖貞
在幽昏處誘以巧言則動心矣都彌曰若臣妻雖死無貳
王欲試之留都彌以事使一近臣假王衣服夜抵其家謂
其婦曰我聞爾好與都彌博得之來日入爾爲宮人將亂
之婦曰王無妄語吾敢不順請大王先入室吾更衣而進
退飾一婢薦之王後知見欺怒甚誣都彌以罪矐兩眸子
置舩泛河遂引其婦強欲淫之婦曰今良人已失獨身不
能自持況爲王御豈敢相違今有所避請俟他日王信而
許之婦便逃至江口不能渡呼天慟哭忽見舟至乘到泉
城島遇其夫未死掘草根喫遂與同至高句麗終於羈旅

詩 矐矐雙眸放大河國君威柄奈如何我儀我特眞天
合縱備宮人矢靡他 詭言逃走出重闈泣涕漣洏傍
水濱天地神明皆佑助泉城島上見良人

최ᄡᅵᄂᆞᆫ고려읍이령라부ᄯᅩ
셕령암ᄯᅡ사ᄅᆞᆷ최인우
의ᄯᆞᆯ이라진쥬호댱뎡
만의쳬되야네ᄌᆞ식을
나코사더니왜적이진
쥬의드러오니ᄯᆡ예지
아비ᄂᆞᆫ셔울가고최ᄡᅵ
나히삼십예ᄯᅦ예ᄌᆞ식
이잇ᄂᆞᆫ디라어린ᄌᆞ식
을ᄭᅳ을고산듕의피ᄒᆞ
엿ᄯᅥ니도적이자바내
여칼로ᄶᅵ혀겁간ᄒᆞ고
ᄶᅧᄒᆞ거ᄂᆞᆯ최ᄡᅵ남글안
고ᄭᅮ지져ᄀᆞᆯ오ᄃᆡ네엇
지도적의게몸을더러
이리오ᄒᆞ고ᄭᅮ지기를
긋치지아니ᄒᆞᆫ대도적
이죽이고ᄌᆞ란ᄌᆞ식둘

崔氏奮罵 高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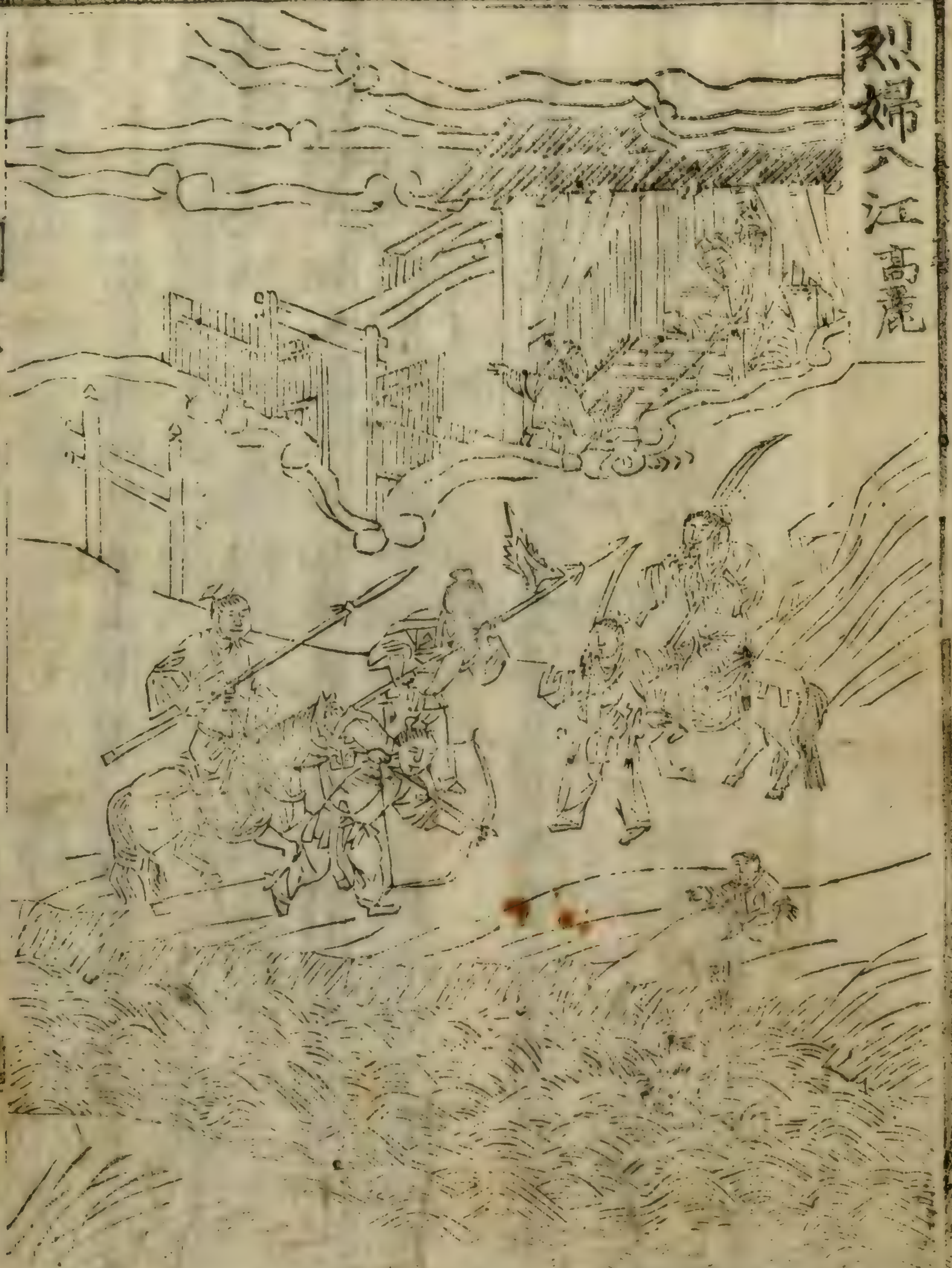
ᄒᆞᆫ살ᄋᆞᆯ잡아가고얼인
ᄌᆞ식들ᄒᆞᆫ듣고가니셋
채아ᄃᆞᆯ습이ᄂᆞᆫ나히녀
ᄉᆞ세라죽엄겻ᄒᆡ셔블으
지져울고강보의잇ᄂᆞᆫ
ᄌᆞ식ᄋᆞᆫ긔여가셔죽엄
의졋ᄉᆞᆯ피조차ᄲᆞ라먹
더니이윽ᄒᆞ야죽으니
라그후십년만의감ᄉᆞ
댱하리ᄒᆞᆫ사ᄅᆞᆷ이나
라히장계ᄒᆞ야졍문ᄒᆞ
고습의구실을더러주
니라

烈婦崔氏靈巖士人仁祐女也適晉州戶長鄭滿生子女四人其季在襁褓洪武己未倭賊寇晉闔境奔竄時滿因事如京賊闌入里閭崔年方三十餘且有姿色抱携諸息走避山中賊四出驅掠遇崔露刃以脅崔抱樹而拒奮罵曰死等爾汚賊以生無寧死義罵不絕口賊遂害之斃於樹下賊擄子息以去第三兒習甫六歲啼號屍側襁褓兒猶匍匐就乳血淋漓入口尋亦斃焉後十年己巳都觀察使張夏以聞乃命旌門蠲習吏役

詩 良人上計赴王京　倭寇搶攘陷邑城　汚賊幸生寧死義　中心取舍已分明

賊勢縱橫闔郡驚　携兒被擄若為情　可憐抱樹捐生處　風響依稀罵賊聲

빈ᄲᅵ는우리나라진
ᄉᆞ빈흥텬걸이라너
동교의췌되엿더니
왜란을만나지아비
ᄲᅡ홍가고홀ᄌᆞ이십
셰에도적이집의돌
어오거ᄂᆞᆯ빈ᄲᅵ열일곱ᄌᆞ식
을안고도라나강의
다ᄃᆞ라니도적이ᄯᅡᆯ
아오거ᄂᆞᆯ빈ᄲᅵᄂᆞᆼ히
면치못ᄒᆞᆯ줄을알고
ᄌᆞ식을언덕의노코
강의ᄯᅱ여들ᄯᅢᄒᆞᄂᆞ도적
이활을ᄃᆞ릭여ᄡᅩ려ᄒᆞ
며닐오ᄃᆡ물의드디
말고나오면살니라
빈ᄲᅵ돌아보며ᄭᅮ지
저ᄀᆞᆯ오ᄃᆡ내엇지몸



을도적의게더러이
리오ᄒᆞ고대도적이엇
게를ᄲᅡ아두번ᄡᅩ아
믈속의ᄲᅡ져주그니톄
복ᄉᆞ됴죤이나라히
알외여졍문ᄒᆞ니라

烈婦京山人進士裵中善女也旣笄歸士族李東郊善治內事洪武庚申倭賊逼京山闔境擾攘無敢禦者東郊時赴合浦帥幕未還賊騎突入烈婦所居里烈婦抱乳子走賊追之及江江水方漲烈婦度不能脫置乳子岸上走入江賊持滿注矢擬之曰而來免而死烈婦顧見賊罵曰何不速殺我我豈汚賊者邪賊發矢中肩再發再中遂殁於江中體覆使趙俊上其事旌表里門

詩 島夷来逼孰能當闔境蒼皇走且僵忍見乳兒啼岸上自知難脫赴滄浪 倭寇由来性不仁那知烈婦行眞純灘聲千載猶悲咽到此無人不愴神

님ᄡᆡ는우리나라젼쥬션비님거의ᄯᆞᆯ이라왜적이잡아겁간ᄒᆞ고져ᄒᆞ거ᄂᆞᆯ님ᄡᆡᄭᅮ짓고좃지아니ᄒᆞᆫ대도적이ᄒᆞᆫᄑᆞᆯ과ᄒᆞᆫᄃᆞ리ᄅᆞᆯ버히되오히려ᄭᅮ짓기ᄅᆞᆯ마지아니ᄒᆞ고죽으니라

林氏斷足本國

林氏完山府儒士棐之女也適知樂安郡事崔克孚倭寇本府林被執賊欲汚之林固拒賊斷一臂又斷一足猶不屈被害

詩 林氏完山禮義家倭奴突入肆兵戈兇渠白刃焉能浼之死心堅矢靡他 貞烈高風擧世驚臨危捨命不偷生一身取舍分明甚義重方知死亦輕

김ᄡᅵᄂᆞᆫ우리나라안동사ᄅᆞᆷ이라유텬계의쳐되엿ᄯᅥ니텬계슈잘리살비갈ᄡᅵᆫ취ᄃᆞ려닐ᄃᆡᄅᆞᆯ오되오ᄂᆞᆯ이도ᄒᆞᆫ날이니나쳐자고갈여ᄒᆞ노라쳬ᄅᆞᆯ오ᄃᆡ나도ᄒᆞᆫ가지로나가질이라ᄒᆞ고집의드리와힝장을ᄎᆞᆯ이티니밤듕의문득사ᄅᆞᆷ이급히웨ᄂᆞᆫ소릐잇써ᄂᆞᆯ김ᄡᅵ놀나내도아보니범이불텨그지아비ᄅᆞᆯ믈어가ᄂᆞᆫ지라김ᄡᅵ범을ᄯᆞᆯ와ᄒᆞᆫ손으로지아비손을잡고ᄒᆞᆫ손으

로범을치며거의
뉵십보ᄅᆞᆯ돌ᄋᆞ니
범이그지아비ᄅᆞᆯ
노코믈러안해ᄂᆞᆯ
김씨ᄅᆞᆯ므러비날
을므ᄌᆞ믈고쥐ᄒᆞ、
논다범이도라나
거ᄂᆞᆯ지아비ᄅᆞᆯ보
니긔졀ᄒᆞ엿더지
라업어도라와겨
요살낫더니그밤
의범이또와쉬소
리ᄒᆞ거ᄂᆞᆯ김씨막
대ᄅᆞᆯ들고범ᄃᆞ려
닐ᄋᆞ되네또
ᄒᆞᆫ령믈이라엇지
일어ᄐᆞ시심히구
ᄂᆞ뇨ᄒᆞᆫ대범이집
압ᄒᆡ비남글믈여
버흘고가니그남
기ᄆᆞᆯ나죽으니라

金氏安東人適散員俞天桂洪武辛巳天桂嘗行戍謂其
妻曰今日吉吾將出宿於外其妻曰吾亦出宿矣遂入室
裝糧夜半忽有人驚呼聲婢僕皆縮頸金挺身出虎已攫
夫去金把木弓叫呼而前左手執夫右手撲虎幾至六十
步許虎委之而止金曰爾既攫我夫欲并取我耶虎乃去
夫氣絶金負而歸家黎明夫甦其夜虎又至唐突大吼金
又開門荷杖語虎曰爾亦含靈之物何若是之甚乎虎囓
舍傍梨樹而去樹乃枯

詩 慇懃入室為裝糧　出戍良人宿舍傍　夜半忽為虓虎
攫　追奔手撲俾無傷　大吼重來家可驚　開門荷杖語
丁寧　縱然嚙樹終無害　始信毛虫亦性靈

김ᄡᅵ노우리나라
풍산사ᄅᆞᆷ이라니강
의쳬되엿ᄯᅥ니깅
이길가다가도세
ᄯᅥᆯ어티죽으매풍
이축엄을메어가
지고들어오니김
ᄡᅵ죽엄을안고ᄯᅱ
놀며울고ᄂᆞᆯ이님
도록밥을먹지아
니ᄒᆞ거ᄂᆞᆯ부뫼ᄀᆡ
유ᄒᆞ여ᄌᆞᆯ오되먹
고우다야무어시
의에해로오리오
ᄒᆞᆫ대김ᄡᅵᄌᆞᆯ오ᄃᆡ
부리먹지아니ᄒᆞᆫ
논줄이아니라뎔
로ᄂᆞᆸ싱ᄀᆞᆨ이업세

라ᄒᆞ고공시히먹
디아니ᄒᆞ더니오
십삼일만의죽으
니나히ᄉᆞ믈이라
부뫼어엿비너겨
부쳐을합장ᄒᆞ니
라

金氏豐山人適李橿橿墜馬道斃其僮舁屍歸金號咷擗踊抱屍經三日夜及殯益自哀慟踰月不食唯啜水而已父母諭之曰食而哭於義何害金曰非哀而不食自不思食耳纔是疾也至五十三日而死年二十父母憐之同穴而窆

詩　夫因馬蹶忽舁屍擗踊號咷日抱持不食數旬唯啜水竟捐軀命事堪悲　性善由來見四端人能踐履家為難豐山一女知偕死同穴千秋得所安

三綱行實烈女圖終

歲在丙午春箕營刊

右三綱行實圖一編乃我 世宗朝所刊
布也其以爲明人倫敦敎化之一助也
蓋生於彝倫而必於此三者能盡其道
則爲聖爲賢不能者人而不墮爲人後
從古及今莫不以是爲本此編之行
已三百有餘年于今日東方之人能孝而篤
至而忠夫和婦朋不循於禽獸者殆矣

者必非此編所以寓觀感之也亦爲勸善
少也哉凡知之生俗皆秉彝雖甚頑
雖似若苟是古人之行哉人之可東窮
而戲然當以感能勸發然勝彼從說汲爲
雖人果子者背之此編而圖其皆古人之
之法特行而又爲詩以係之末可見寓觀
於圖編之詩其尚苟背人法理親而觀哉

而真趣也與何日　歷祖之所以特録
刹那者也余於晚年論此道是哉俗
耽來甚淳以窮慨然矣及為吾作之笠
多廣寄此圖以贈寧俊々者亦本道庵
無此板遂求得一本々募趣之刻出而顧
嗟乎譯諺書語意多難解又皆增刪
頗翻使觀者雖愚夫愚婦皆得瞭然易

知何物本一道豈得以少補風俗之萬
一時吏治因以知有教者況以行有教者臨
為上者苟能躬行之實踐而倡從之下
哉今余此圖之刊行非以謂從政之本專
在於已為政者亦不可不知此之旨也

癸酉年春行平安道觀察
使兼巡察使尹憲柱謹識